

↑ 코스피 2572.09 (+58.72)	↑ 코스닥 731.03 (+21.61)
↑ 금리 (연율) 2.866 (+0.046)	↑ 환율 (원/달러) 1341.80 (+2.80)

m-커버스토리

티메프·전세사기·금투세 등 민생현안 도마위 오른다

22대 국회 첫 국감 이슈

티메프 사태 집중조명 전망
전기차 배터리 화재도 주목
금투세 폐지 등 첨예대립 예고

22대 국회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가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다. 2022년과 2023년 국정감사는 윤 대통령 집권 초반이므

로, 정부 정책 집행 상황에서 상당부분 이전 정부의 영향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상황이므로, 윤석열 정부의 성과 과를 그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같은 정쟁보다는 먹거리가 궁금하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회복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여야 경제상임위가 어떤 현안을 집중 추궁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우선 여름 휴가철을 뜨겁게 달궜던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가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입힌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문제를 두고 정부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째 피해자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는 올해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여야는 합의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에 허점

이 있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라,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제시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에 대한 지적이 줄이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지역형 급발진 사고' 등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지적도 국민의 주요 관심사다. 급발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만큼,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만든 저출생 대책도 국감에 언급될 전

망이다. 신혼부부를 울리는 '부동산'이 문제인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의 경우 여야가 폐지 혹은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지만, 상속세와 종부세는 총론과 각론이 모두 갈린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
뉴욕증시에서 인공지능(AI) 칩 대표주인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8.72포인트(2.34%) 오른 2572.09에 장을 종료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61포인트(3.05%) 상승한 731.03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우리금융 사고, 심각한 우려 경영진 거취는 이사회가 판단”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당분간 부채관리 엄정하게 관리”

“우리금융그룹에서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다. 금융원에서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싶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경영진도 책임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와 함께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서 추가로 대출받은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 단순히 직원의 판단 부재로 보기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등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만큼 현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경영진의 거취와 관련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우리금융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면서도 책임을 묻는 주체는 이사회와 주주가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우리금융 이사회가 현 경영진의 진퇴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도입한 이후 절반

가량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보고받은 것은 9월 5영업일 밖에 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달 들어 은행권에서 5영업일간 발생한 가계대출은 1조 1000억원으로 8월 5영업일 기준으로는 절반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공급과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당분간 부채관리를 엄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만큼 수요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부채관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올해 11월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해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 경쟁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4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 이후 평가 결과를 감안해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직접 보조금으로 K반도체 경쟁력 높여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글로벌 기업 경쟁 위해 지원 필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조선·서울 강남병·사진)은 12일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 의원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반도체 기업의 성장이 복지재원으로 환원돼, 결국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가진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타국과의 경쟁에서 늦게 시작할수록 타 국가와의 경



쟁력 우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주요 경쟁국과 최대한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설명했다.

(관련 인터뷰 3면)

또한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결과가 나오는 대표적인 자본 집약산업”이라며 “현재 직접 보조금의 당위성을 근거로 서로 한창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반도체 글로벌 분업체계가 재편되면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기업에 수십조원의 직접 보조금

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간접지원’을 넘어서 직접 보조금으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해야 반도체 발전의 ‘순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팹(반도체 제조 시설)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생산원가가 낮아져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법인세, 소득세 납부 등으로 ‘성장을 통한 기여’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여야의정, 참여 의향 밝힌 단체부터라도 일단 시작하자” /사진 뉴시스
▲ 대통령실 “감사원 감사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 확인돼”

▲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공사 법규 위반 여려진”... 경호처 간부 ‘파면’ 요구
▲ 민주 “정부·여당, 25년도 의대정원 입장 정리해야... 협의체 빨리 출범하자”



▲ 부산 간 조국 “민주당, 보선 후보 공개 토론 통해 단일화하자”
▲ 오세훈 “이재명, 25만원 살포를 소비쿠폰이라고 말장난” /사진 뉴시스

건강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9월16일~18일자 신문 쉽니다.
(인터넷뉴스는 정상 서비스)

2052년 1인 가구 절반 65세 노인... 20대 부부 0.1% 불과

〈전체 부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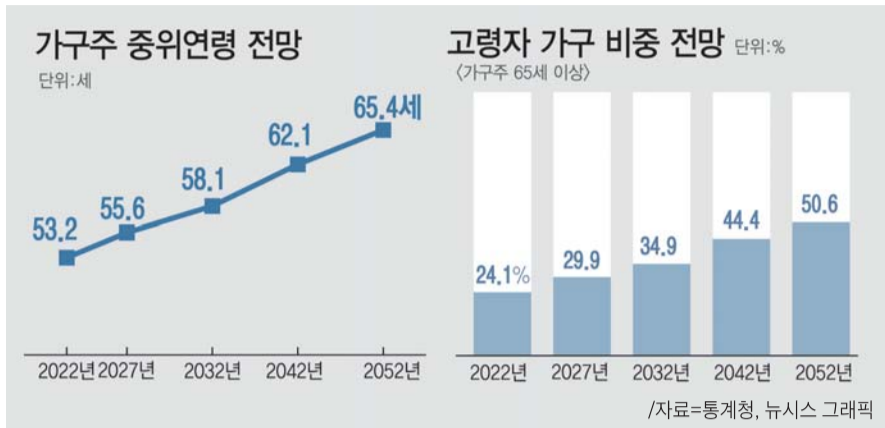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30대 부부 3.0%, 40대 3.3% 급감
70대 부부 37%, 80대 26%로 증가

앞으로 28년 후 국내 1인 가구(主)의 절반 이상은 65세이상 노인일 것으로 예측됐다. 그중에서도 80대가 전체 1인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 부부 1000쌍 중 1쌍만이 20대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을 발표했다. 단, 이 통계는 최근의 가구 변동 추이가 미래에도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작성됐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중 65세이상 가구주비중은 26.0%(192만 가구)로 집계됐다. 30년 가까이 흘러 2052년에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51.6%(496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계는 내다봤다.



1인 가구 둘 중 하나는 65세이상 노인이 홀로 거주한다는 뜻이다. 특히, 1인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나이대는 60대나 70대가 아닌 80대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부로 구성된 가구 연령대도 점차 높아져 젊은 부부는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전체 부부 가운데 20대 부부의 비중은 2022년 1.3%에서 2052년 0.1%로 크게 감소한다. 20대 부부는 사실상

보기 힘들 것이라 예측이다. 같은 기간 30대 부부 비중 역시 8.1%에서 3.0%로 급감한다. 40대(6.5→3.3%)와 50대(17.5→9.0%)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반면, 70대(22.9→36.9%)와 80세 이상(8.5→25.6%) 부부의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한다.

2022년 부부가구는 60대 가구주가 35.0%로 가장 많았다. 2052년에는 70대 가구주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추계

는 봤다.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의 경우 2022년에는 40대와 50대가 64.7%를 차지했으나 2052년에는 58.8%로 감소한다. 60대 이하는 모두 감소하는 데 반해 70대 이상만 증가하게 된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한 부모 자녀가구 비중은 2022년 9.3%에서 2052년 7.6%로 소폭 줄어든다. 2022년 한 부모 자녀가구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32.2%로 가장 많았다. 2052년에도 50대(32.8%)가 가장 많을 것으로 봤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가구 수는 2166만4000개로 전년대비 1.84% 증

가했다. 이후 2041년에 2437만 2000가구가 정점을 찍고, 2052년에는 2327만 7000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구증가율은 2042년부터 꺾여 2052년에는 -0.73%로 주저앉게 된다.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가구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분화로 인해 2041년에 정점에 이른다. 3~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1인 가구로 나뉘면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는 증가하는 셈이다. 평균 가구원수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2022년 2.2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2년 1.81명까지 줄어든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세계 첫 'QLC 286단 낸드' 삼성 "AI 반도체 이끌 것"

전작대비 데이터 보존성능 20% ↑ 쓰기 100%, 입출력 속도 60% 개선



삼성전자가 1테라비트(Tb) 용량을 갖춘 퀴드레벨셀(QLC) 9세대 낸드플래시를 업계 최초로 양산한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시대 초고용량 서버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위한 9세대 V낸드(사진)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 9세대 V낸드는 '채널 홀 에칭' 기술을 활용해 더블 스택 구조로 업계 최고 단수를 구현해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 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홀을 만드는 기술이다. 특히 이번 QLC 9세대 V낸드는 셀과 페리의 면적을 최소화해 이전 세대 QLC V낸드와 비교해 비트 밀도가 약 86% 증가했다.

V낸드의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층간·층별 셀 특성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V낸드 제품이 '디자인드 몰드' 기술을 활용해 전작 대비 데이터 보존 성능을 20% 높였다"고 설명했다. 디자인드 몰드는 셀 특

성 균일화 및 최적화를 위해 셀을 동작시키는 워드라인(WL)의 간격을 조절해 적층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QLC 9세대 V낸드가 이전 세대 제품보다 쓰기 성능은 100%, 데이터 입출력 속도는 60%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낸드 셀을 구동하는 전압을 낮추고 필요한 비트라인(BL)만 센싱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한 '저전력 설계 기술'로 데이터 읽기, 쓰기 소비 전력도 각각 약 30%,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희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개발실 부사장은 "9세대 TLC 양산 4개월 만에 9세대 QLC V낸드 또한 양산에 성공함으로써 AI 용 고성능, 고용량 SSD 시장이 요구하는 최신 라인업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암! 치료비가 커질수록 보장금액도 커져야 하니까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무)

예상하지 못했던 암보다 더 예상하지 못했던 암치료비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무)는
치료가 길어져도 치료비가 커져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보장해주는
빈틈없이 균형잡힌 보험입니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무)

☎ 080.365.6363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위험 직군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보장 개시일은 가입 후 91일로부터 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1년 이후 지급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본 상품의 특약은 비갱신형 또는 갱신형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특약은 10, 20, 30년 주기로 갱신되며 특약별로 상이합니다 (최대 100세).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4-04786호(2024-07-30 ~ 2025-07-29)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4-07-031

www.hanwhalife.com

콘서트표 웃돈거래하면 '형사처벌'

권익위,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방안

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다.

앞으로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매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암표 판매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 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매 이득을 챙기는 등 전문화·조직화되는 추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으나,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최근 유명 가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 열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

인터뷰 | 고 동 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강남병)

“반도체 산업, 정부 역할 매우 중요 특별법 통해 클러스터 성공 시켜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집요했다. 11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4번째 주자로 나서 질의 전체를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필요성’에 할애했다.

◆집요하게 최상목 부총리 설득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장비 한 대에만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의 ‘자본 집약적’ 특성을 설명했다. 정부의 직접보조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를 대기 위해 꺼낸 말이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만만치 않았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세제 혜택이 수준급이라며 반도체 산업 육성의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22대 국회 ‘반도체 특별법’ 발의 대정부질문서 보조금 관련 정책질의 “정부, 기업 역할 적절히 분담해야”

이에 고 의원은 파운드리 1위 업체 대만의 TSMC가 미국에서 8조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대만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쟁국의 보조금 지원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도 직접보조금을 지원하면 반도체 경쟁력 제고와 주권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최상목 부총리도 고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어떤 기업이 됐든 경쟁력이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노력하겠다”, “재정이 팹리스(반도체 칩 설계·개발 회사)의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날 고동진 의원은 정쟁과 고성으로 얼룩진 대정부질문에 찾아보기 힘든 ‘정책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의원은 대

정부질의에 대해 “기재부의 반대 논리도 이해가 된다”면서 “하지만, 반도체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다. 다른 반도체 경쟁국들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국내의 문제를 들어서 보조금 지급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위해 ‘특별법’ 통과돼야

조선인 고 의원이 국회에 입성해서 고심해서 만든 법은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이다. 특별법은 ▲정부가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계획 수립 ▲대통령 직속의 특위 설치 ▲반도체 산업특별회계 설치 ▲직접 보조금 지원 ▲전력망 등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신속 확충 및 국비 지원 ▲관련 인허가 의제 및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파운드리 산업발전 시책 수립 및 시행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특별법은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이고, 국민의힘 당론안으로 재발의를 할 예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가진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직접 보조금 이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일본 TSMC 구마모토 1공장은 통상 5년이 걸리는 것을 2년4개월 만에 준공했다”며 “우리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완공을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일 110만톤 이상의 용수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팔당댐과 화전댐, 여주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외 필요한 용수들은 하수 재이용수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의 경우엔 10기가와트(GW)가 필요한데, 3GW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 발전 방식으로 조달하고, 나머

지 분은 원전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송전망의 적기 구축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 반도체특별법을 통하여 송전망 인허가 의제 및 신속 패스트트랙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비용부담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 중요 과제

고 의원은 국내 반도체 분야에서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의 격차가 큰 것을 지적하며, 입법과 보조금 지원 등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등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잘해온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산업계에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산업계가 정말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제도 개선 등 지원책 강조 “해외비해 기초체력 기르기 어려워 장기적인 국가정책 필요한 시점”

특히 고 의원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 해외기업들과 비교해 우리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집중되지 못하다 보니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예를 들어 팹리스 기업이 시제품 제작 시 5나노 기준, 파운드리 비용만 약 100억원이 드는데 영세한 스타트업이 많은 팹리스 기업들은 비용의 부담으로 시제품 제작조차 못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약력

- 1961년생 서울 출생
- 2015.12~2020.01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장, 사장
- 2018.3~2022.2 삼성전자 대표이사
- 2024.5 제22대 국회의원 (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 2024.6 제22대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024.8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이 점점 확대되면서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과 생태계 안에서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IP)-팹리스-디자인하우스-파운드리 등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제가 삼성전자 출신이라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반도체 중견·중소기업 육성에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인재양성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에는 반도체 인체가 30만4000명에 달하겠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이 필요로 한 인력보다 5만4000여 명 부족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대만의 TSMC는 국립대와 고등학교에 반도체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과 손을 맞잡고 해외 대학의 인재도 함께 양성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를 돌며 인재 확보에 나선다고도 한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도 기업에서는 높은 연봉, 근로조건 등 강력한 유인책으로 해외 유수의 반도체 인재를 유치함과 동시에 정부 역시 이들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비자 발급 등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반 가족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반도체를 비롯한 새로운 산업의 성장은 기술이 먼저 변화하고 교육과정은 뒤따라가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력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인재를 선도적으로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퀀텀코리아 2024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뜨거운감자’ 금투세, 野 내부서도 이견... 국회 ‘조율’ 필요

국감 여야 치열공방 예고

국회의 각 주요 경제 분야 상임위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안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금융 이용자 보호 등 민생·경제 사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금투세·상속세 등 세제 초점 기획재정부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유예·폐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금투세는 금융자산 과세제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해 과세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2023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나 2년 유예하여 2025년1월1일부터



티메프 사태 피해자 모임 단체 소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터 실시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비과세되는 채권·상장주식(소액주주)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대로 금융소득

으로 징수한다. 금투세의 기본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 등은 5000만원, 그 외 금융상품은 250만원. 서울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안을 담았다. 국민의 힘은 개인 투자자의 반대 여론과 금융시장의 올 충격에 우려하면서 일찍이 폐지 입장을 내걸었다.

기재위, 금투세 폐지안 여야 대립 상속세·종부세 완화안, 핵심 쟁점 금융소득 과세 개편안, 집중 검토

민주당은 이미 한번 유예됐던 만큼 내년에 실시하지는 것이 정책위의 의견이었으나, 내부에서 유예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며 통일된 입장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도 세제개편안에 담기면서 국감 무대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면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이같은 완화안에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은 그대로 둔채, 일괄공제액은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라는 명분에 목소리가 갈리는 모습이다.

추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상속세 부과방식인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제 개편을 내년도에 예고한 바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자산 전체에 누진 세율로 부과하는 유산세와 달리 각각의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유산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

◆산자·정무, 첨단전략산업 지원·티메프 사태 후속 관리 중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선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정무위에선 이른바 ‘티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자 지원안의 집

행과 재발방지책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단편적이고 졸속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감 기간 동안 치열한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단통법·미디어 통합법 등 초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 폐지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단통법이란 소위 말하는 ‘성지점’에서 휴대폰을 싸게 사지 못하면 ‘호갱(호구 고객)’이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공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제에 의해 통신사 간 경쟁이 줄면서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 통신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업계 안팎에선 단통법 대한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거론된다.

미디어 통합법도 주요 논의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송, 통신 등 소관 부처 간 중복 규제와 과잉 규제가 넘친다고 지적돼 왔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 통합법이 언급돼 왔다. 미디어 통합법은 현행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산된 미디어 규율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으로,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엔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OTT(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도 제도권 안으로 포섭 내용도 포함된다.

산자위,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문제점검 정무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강화 검토 국토위, 전세사기 방지 대책 주요현안

◆국토위, 전세사기 방지·급발진 의심 사고 대책에 집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방지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책을 주요 현안으로 꼽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개편이 국감 현안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제도가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 가격 산정 방식의 우선순위와 주택 가격 담보인정비율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반환보증 가입 범위가 축소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과 시장에 참여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방안도 주요 관심사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주요 쟁점은 사고에 관한 입증능을 누가 하는 것인데 최근 국회 자동차제작사가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업계들도 어떤 반응을 낼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박태홍·윤도현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로보락의 등장 물건의 종말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를 처음 만난
아이는

어느덧
꿈을 향해 달려가는
스물두 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찾은 소리로 꿈에 한 걸음

KT의 소리찾기 활동으로
소리를 되찾은 최근 씨는
꿈이 생겼습니다

본인처럼
소리를 다시 찾은
친구들이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 멋진 여정에
KT도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22세)
KT 꿈품교실 1회 졸업생

KT 소리찾기 | 꿈품교실

KT는 22년째 사회공헌사업 '소리찾기'를 통해 난청 아동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공와우 수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꿈품교실'을 통해
언어/음악 등의 재활 치료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T 꿈품교실은 서울, 제주, 광주광역시 및 캄보디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러가기



kt, 당신과 _ 미래 사이에

尹, 체코 공식 방문... '신규 원전 건설사업' 후속조치 나서

김건희 여사와 오는 19일 출국 체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넘어 전방위 협력관계 발전 방안 협의 정상회담서 외교·안보 집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박4일간 체코 공화국을 공식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후속조치의 성격이 가까워 보인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한-체코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후 9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호 차장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양국간 관계 강화를 위해 폭넓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체코 정상회담 후에는 공동기

자회견도 갖는다.

김 차장에 따르면 한-체코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페트르 파벨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경제협력 이슈를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는 체코는 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일종의 의원집정부제를 채택

하고 있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대표성을,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경제·사회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저녁 양국 대표단과 정관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20일에는 파벨 대통령과 함께 대한상의-체코상의 및 체코 산업연맹이 공동주최하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이어 대표적 원전 설비 생산기업을 방문해 공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체코 의회 하원과 상원의장을 각각 접견하고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고 21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이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원전동맹’이다. 김 차장은 “특히 이번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은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

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1호 영입사업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세일즈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뒤이은 브리핑을 통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이 내년에 최종계약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체코의 협조와 지지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순방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분야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분야)이 대거 동행해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원전생태계 모든 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브리핑에서 “원자력 분야는 기존 핵연료 연구는 물론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연구 개발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소재개발, 동위원소 생산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한동훈 “의료개혁 과정서 관계자의 상처주는 발언 있었다”

의료계 이견으로 당정협의회담 열려 韓 “의료계 단일대오 갖추기 어려워 野, 조건 걸지 말고 함께 출발해주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12일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왔던 정부 측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그간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상처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담에서 “그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부분에 유감을 표명



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상처주는 발언’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국회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듯한 ‘의새’ 발언 논란에 의료계의 반발을 샀고 라디오 방송에선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해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과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 해법을 논의하는 협의체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의료계 참여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당정협의회담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와 먼저 협의체 출범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대한의사협회 등 대표성 있는 단체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한 대표는 지금은 해법 마련을 위해 대화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화 뿐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여·야·의·정 모두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말고, 대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에서 보셨겠지만,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다수 또

는 특정 단체의 참여를 협의체 출발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국 협의체의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조건을 걸지 말고 함께 출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막상 출범하려 하니 대한의사협회가 꼭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거나, 그렇게 전제조건을 걸면 협의체가 출발도 못하고 흐지부지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협의체를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불안감을 덜길 원한다면 특정 의료단체의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일단 협의체의 출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면서

“국회의장마저 여러가지 정치 표결을 미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집중하고 협의체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담 후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단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곳이 여러 곳 있고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시작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며 “야당만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할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석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 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응급의료센터가 400명 정도의 의사, 간호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또, 연휴 기간 동안 8000여개 동네 병의원 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이재명 “다음 지선·대선 위해 당원중심 정당으로 바뀌야”

민주적 대중정당 중심에 시·도당 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시·도당 위원장들에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을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시·도당 위원장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다음 지방선거도 잘 준비해야 하고, 그다음 대선도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이라며 민주당에 주어진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 지금 당장의 과제로 민주당의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국민주권국가의 당원 중심 정당으로,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확실하게 체질을 바꿔나가야 하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 중심에 민주당의 시·도당이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당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효능감을 느끼면서 당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들

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각 시·도당이 처한 상황들도 매우 서로 상이해서 ‘어떻게 서로 공존하고 또 협력해 가면서 전국 정당으로 민주당이 발전해 나갈까’라는 문 제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윤도현 기자 yunb0611@

민주당, 宇 ‘본회의 표결연기 요청’ 수용

(우원석 국회의장)

채상병·김건희 특검, 지역화폐법 연기 추석 의료대란 국민 걱정 해결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우원석 국회의장의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표결연기 요청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세 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15일 후(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15일 후에 재의결해야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전에 재표결 절차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선 오늘 본회의의 처리를 하는 것이 일정상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의원총회에서) 본회의의 처리를 19일로 미뤄도 괜찮을 것 같다”며 “추석 앞두고 국민들이 의료 대란을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일정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제3차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 진상조사가 담긴 ‘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지역화폐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전날(11일) 세 법을 여야의 쟁점 법안으로 보고 의료 대란 해결이 우선이라며 세 법의 본회의 표결을 19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도현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하이닉스 르네상스의 원년을 만드는
ONE TEAM PLAY

SK하이닉스 4만여 구성원들은 힘을 합쳐
글로벌 No.1 메모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집값 상승, 과거 상승기 유사... 빛 부담에 소비회복 지연

서초·성동구 집값, 전고점 상회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거래 증가
가계부채 늘고, 집값 상승 반복
민간소비 제약 구조적 요인 작용

최근 수도권 중심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이 과거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2001년, 2005년, 2015년, 2021년과 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상승기 가격의 90%를 회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 대비 88%를 회복했고, 서울은 92% 회복했다. 서울 중 서초구와 성동구는 각각 101%, 100%로 전고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소득, 사용가치와의 괴리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시장 위험지수를 살펴보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비율 상승 이미지.

면 서울은 올해 1분기 0.62에서 2분기 0.93으로 올랐다. 7월 기준 위험지수는 1.11이다.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주택가격과 소득, 사용가치의 괴리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0.5에서 0.5미만 중립 ▲0.5~1.5미만 고평가 ▲1.5~2.5미만 과열위험을 의미한다. 사실상 2019년 3분기(0.49) 이후부터 서울지역의 집값은 고평가돼 있었지만 최근들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집값 상승, 기존 상승기 사이클 유사

이날 한은은 주택거래에 따른 가계부

채 비중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로 OECD 31개국 중 4번째로 높다. 다만 가계대출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4월 5조원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3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또 이 같은 상황이 ▲2001~2003년 ▲2005~2008년 ▲2015~2018년 ▲2020~2021년 주택가격 상승시기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회복 기

대감에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부총재보는 "기존에도 주택건설이 감소하는 등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며 "서울 등의 신축아파트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고 금리인하 기대감에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최근 상황이 기존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 빛 갚느라 지갑 닫는 가계 5.1%→12.2%

다만 늘어난 가계부채는 상환부담으로 이어져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소비를 제약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임계치는 47%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임계치보다 높은 가계의 비중은 2013년 5.1%에서 2023년 12.2%로 늘었다.

박 부총재보는 "가계부채비율이 80%를 상회한 2010년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높은 가계부채비율은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시기는 집값보다 '가계대출' 둔화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재보는 "지난달 금리 결정 당시, 주택거래와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8조원 이상으로 오를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후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여러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집값상승)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데 경제성장 흐름과 금융안정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경제성장 흐름의 주요 문제로 거론되는 내수(소비·투자)는 기업실적이 개선되며 하반기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면 서서히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둔화세에 따라 금리인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며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새출발기금’ 신청액 작년 동기비 80% 쯤

고금리·경기불황에 부실 급증
전체 사업자 대상 확대 주요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당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던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전체 사업자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조정 신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캠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액이 13조3600억원을 기록해 지난 1월 말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기록한 3조1000억원 대비 80%가량 늘어난 규모다.

'새출발기금'은 경영 어려움으로 부실 및 폐업이 발생한 사업자에게 원금 조정 또는 이자 감면을 제공하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은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한해 채무 조정을 제공했지만, 고금리

기조와 불황 장기화에 자영업자의 연체 및 폐업이 빠르게 늘면서 지난 2월부터는 지원 요건에서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한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신청 자격 기준 완화에 따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가 확대됐고, 신규 조정 신청이 늘고 있다"며 "고금리 및 불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많은 만큼, 신청 요건에서 코로나19 피해요건을 제외한 것이 신청자 증가에 주요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안도걸 의원실이 국회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10.8%로, 전년 대비 0.9%포인트(p) 증가했다. 자영업자 연체율도 지난 5월 말 기준 0.61%를 기록해,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한 차례 더 확대한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9월 말 시행 예정이었던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12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조정 신청 기간도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도 기존의 30조원에서 10조원 이상 증액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 채무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대환대출이 신규대출로 포함되지 않도록 대출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총대출 규모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앞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정책금융상품도 채무 조정 대상으로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 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새출발기금 신규 신청 채무자가)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 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저축은행중앙회, 명절 앞두고 사회공헌 행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9일 소상공인연합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회 임직원 30여명이 신길동 셋강누리상인회를 방문해 쓰레기를 주웠다. 이어 서울, 대구·경북 등 각 저축은행 지부에서는 후원금을 각각 1000만원씩 전달했다. 중앙회는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서민 친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서울 집값 지속 상승... 매수심리도 소폭 ↑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0.23% ↑
성동구 센트라스 한달새 1.5억 올라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25주 연속 올랐다. 매매수급지수도 소폭 상승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9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3%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27일 17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25주 연속 올랐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성동구(0.43%→0.41%)가 금호·하왕십리동 선호단지, 광진구(0.32%→0.34%)는 광장·자양동 주요단지, 마포구(0.30%→0.29%)는 아현·염리동, 동대문구(0.18%→0.22%)는 용두·이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송파구(0.31%→0.35%)는 신천·잠실동 대단지, 서초구(0.41%→0.44%)가 반포·서초동 준신

축, 강남구(0.30%→0.31%)는 개포·대치동 주요단지, 영등포구(0.20%→0.25%)는 신길·당산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센트라스'는 8월 전용면적 84㎡가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매매가격(17억원) 대비 1억5000만원 상승했다.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파크리오'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59㎡가 20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개월 만에 2억5000만원 올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상승했다. 9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5로 전주(103.2)보다 0.3포인트 올랐다. 3주 연속 하락세였으나 이번주부터 다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전지원 기자 jiw13@

삼성생명, 올해 배타적 사용권 5건 획득... 상품 차별성 인정

삼성생명은 올해 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5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을 위한 상품 혁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삼성 치매보험 ▲삼성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 쏙 S3 ▲삼성 합계가는 요양보험 등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로 삼성생명은 업계 최초 4개월 연속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출시한 총 5개의 보험상품이 연이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기존 보험상품과의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이달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3개 상품도 새롭게 선보인 담보들이 독창성과 유용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 치매보험은 경도인지장애와 최경증치매 발생시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돌봄로봇'을 제공하는 헌물특약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의 바탕이 됐다.

/김주희 기자 gh471@

기약없는 AI 기능... 韓, 1차 출시국 의미 퇴색

SK그룹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하이닉스 등 참여... 3272억 규모

애플 아이폰 16시리즈 공개

전작 대비 성능·기능 변화 미미
AI서비스 한국어 지원일정 미정
판매량 늘리기 위한 꼼수 지적도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의 애플 본사에서 신제품 발표회에서 아이폰 16이 공개되고 있다. /뉴시스

애플의 첫 인공지능(AI)폰 아이폰 16 시리즈가 공개됐지만 국내외서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AI 기능을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됐음에도 한국어 지원 일정은 알려지지 않아 국내 사용자들의 사용 시점은 미지수다.

이에 따라 한국이 1차 출시국으로 포함됐다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능은 개선하지 않은 채 판매량만 늘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결국 AI 후발주자인 애플이 성급히 신제품을 내놓았다는 혹평이 이어지면서 '반쪽짜리 AI 폰'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2일 애플에 따르면 새로 출시된 아이폰 16 시리즈는 오는 13일부터 사전 주문이 시작되고 20일부터 매장에서 본격 판매된다. 이번 신제품은 애플의 첫 온디바이스 AI폰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애플은 출시

전부터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애플의 첫 'AI폰'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아이폰16에는 새로운 A18 칩이 탑재됐다. 이전 프로세서보다 30%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 인텔리전스는 사용자가 급하게 쓴 메모를 AI가 대신 정리해주는 등의 기능을 갖췄다. 메모·전화·애플리케이션(앱)에선 음성 녹음, 요약 등도 가능하다. 통화를 마치면 AI가 내용을 요약도 해준다. 또 사진첩에서 보고 싶은 사진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면 이를 찾아주기도 한다.

특히 이번에는 아이폰 출시 이후 최초로 한국이 1차 출시 국가에 포함됐

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2009년 국내에 처음 아이폰이 출시된 지 15년 만이다. 또한 애플은 그동안 지원하지 않던 분실 제품 찾기 기능을 내년 한국에 도입한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AI 기능들은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애플의 생성형 AI 기능은 내달에서야 미국에서 일부 기능만을 선보이고, 한국어 지원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식 버전은 오는 12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출시된다. 내년엔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의 언어로도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아이

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됐으면서도 AI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선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어 버전 도입이 빨라야 2년 뒤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된 의미가 성능은 개선하지 않은 채 판매량만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도 AI를 제외한 다른 기능들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전작과 비슷한 수준인 GPU와 램을 탑재했으며 무게는 10g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아이폰 16프로(256G)의 출고가는 약 170만원으로 아이폰 15프로(256G) 보다 20만원 이상 비싸 가격을 책정했다.

일각에서는 생성형 AI의 후발주자인 애플이 위기감을 느껴 영어 버전만 성급히 개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의 AI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며 "애플 인텔리전스는 수많은 지연에 직면해 있고 많은 주요 기능은 내년이 돼서야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구매를 유도할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분석하며, 아이폰 16 판매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SK그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 대금 약 3272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물품대금 조기 지급에는 SK하이닉스(1210억원), SK텔레콤(1260억원), SK㈜ C&C(400억원), SK실트론(276억원), SK에코플랜트(94억원), SK케미칼(24억원), SK㈜ 머티리얼즈(8억원) 등 7개 관계사가 참여한다. 해당 관계사들은 협력사 납품 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SK그룹은 매년 설과 추석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납품 대금을 선지급해왔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도 각각 1676억 원, 2116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한편, SK그룹은 추석을 전후해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신장 온누리상품권 약 137억 원 상당을 구매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한화그룹 '다이나맥' 지분 공개매수

한화그룹이 싱가포르의 부유식 해양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다이나맥 홀딩스'(이하 다이나맥) 지분에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선다. 다이나맥은 싱가포르 상장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12일 싱가포르 현지 SPC(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를 통해 다이나맥 지분을 공개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매수가는 1주당 0.6싱가포르달러로 설정했다.

두 회사는 이번 매수에 약 6000억원(지분 100% 확보 시)을 투자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두산 연성동박적층판 공장 준공

두산이 AI, 5G, 자동차 전장부품 등 다양한 고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두산은 12일 전북 김제 지평산업단지 내 하이엔드 연성동박적층판(FCC L) 공장 준공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공장은 8만2211㎡(2만4860평) 부지에 건축면적 1만3000㎡(3930평) 규모다.

준공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의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문홍성 두산 사장, 유승우 두산 사장 등 100명이 참석했다.

김제공장에서 제조하는 캐스팅 타입 F CCL은 동박 위에 폴리이미드(PI) 레진을 코팅하고 건조하는 과정을 각각 수차례 거치면서 만들어진다. 라미네이션 타입에서 PI 필름 역할을 하는 PI 레진을 직접 개발해야 해 제조공정 기술 난이도가 높지만, 전파손실이 적고 굴곡도가 높은 하이엔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GM, 미래 모빌리티 협력... 정의선 "고객가치 제고"

(현대차그룹 회장)

양사 포괄적 협력 MOU 체결 배터리 원자재 등 통합 소싱 검토

대한민국과 미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현대자동차와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이하 GM)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주요 전략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생산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및 다양한 제품군을 고객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양사의 잠재적인 협력 분야는 승용·



메리 바라 GM 회장 겸 CEO(왼쪽)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근 미국 현지(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고 있다.

상용 차량, 내연 기관, 친환경 에너지, 전기 및 수소 기술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이다. 또 배터리 원자재, 철강 및 기타 소재의 통합 소싱 방안을 검토한다.

이 외에도 양사는 유연성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역량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메리 바라 GM 회장 겸 CEO는 "양사

/양성운 기자 ysw@

의 이번 파트너십은 체계화된 자본 배분을 통해 제품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며 "상호 보완적인 강점과 능력 있는 조직을 바탕으로 규모와 창의성을 발휘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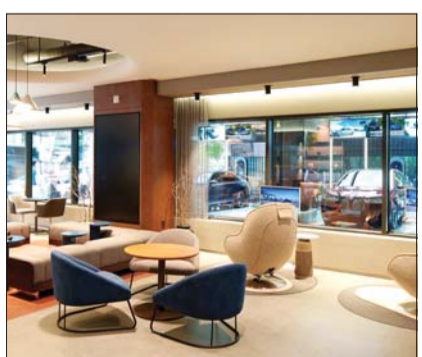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글로벌 주요 시장 및 차량 세그먼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향상시켜 고객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 걱정마세요"... BMW, '차징 허브 라운지' 오픈

충전·휴식 복합공간... 차량 전시도

"전기차 부담없이 충전할 곳은 없나?" "충전은 잘되고 있을까?" "충전되는 동안 뭐하지?"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BMW그룹코리아가 이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오픈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최초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음료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BMW 코리아가 지난 2014년 인연 영종도에 'BMW 드라이빙 센터'를 오픈하며 차량과 트



BMW그룹코리아가 12일 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공식 오픈한 신개념 공공 전기차 충전소 'BMW 차징 허브 라운지' 모습 /BMW그룹코리아

랙 등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자동차 복합문화공간으로 혁신을 일으켰던 것처럼 전기차 충전 공간에 대한 혁신

을 이어가고 있다.

BMW그룹코리아는 서울역앞에 신개념 전기차 충전소 'BMW 차징 허브 라운지'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과 휴식을 결합한 이곳은 BMW그룹이 전 세계 최초로 마련한 라운지형 급속 충전소다.

BMW뿐 아니라 모든 브랜드의 차주들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시간을 그저 충전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시간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기는 시간으로 전환하는 BMW '차징 넥스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라운지는 200kW(킬로와트)급 급속 충전기 6기와 카페 등으로 구성됐으며, BMW 럭셔리 클래스 모델 혹은 다양한 한정 에디션 모델을 위한 차량 전시 공간도 별도로 마련됐다.

GS차지비가 충전사업자로서 전체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라운지는 파르나스 호텔이 담당한다. 특히 충전 구역에는 스프링클러를 3중으로 설치하고, 열화상 폐쇄회로(CC)TV 및 소화장비가 비치돼 안전에 대한 남다른 노력도 느낄 수 있다.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LG전자가 개발한 제품으로, 충전 절차 간편화 서비스 '플러그 앤 차지'(PnC)가 오는 11월부터 지원된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공정 최적화, 안전관리... 시가 이끄는 '스마트 시스템' 혁신

크로포

GS칼텍스 여수공장

“GS칼텍스는 인공지능(AI), 기계학습(ML) 모델을 만들어 모든 공정에 적용함으로써 최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조건에서 어떠한 제품들이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예측하는 등 프로세스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일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만난 GS칼텍스 강재민 디지털혁신팀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의 배경 및 목표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설명에는 GS칼텍스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오랜 고민을 거듭해 온 흔적이 뚜렷이 담겨 있었다.

GS칼텍스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대전환 속에서 조직의 DNA를 바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경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의 거대한 정제 시설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웅장함은 회사의 야심 찬 목표를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GS칼텍스는 지난 1967년 설립 이후 공정 능력을 고도화해 지난 2023년 매출액 총 58조532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의 73%는 해외로 수출하며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확장해왔다. 2023년 기준 여수국가산단은 322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고 이중 GS칼텍스의 수출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1980년초에는 첫 수출 이후 꾸준히 수출액을 높여나갔으며 현재는 에너지 업계 수출액 1위로 국가 무역수지에 기여하고 있다.

여수 공장의 현장 곳곳에서는 디지털



GS칼텍스 VR-AR 안전교육 프로그램.

기술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기계와 설비들은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며 미래형 공장의 모습을 실감케 했다.

최근에는 MFC 공정에 2조 7000억원을 투자해 효율성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정유와 석유화학공정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품 수율을 높이고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이는 COTC(Crude Oil To Chemical)를 국내 정유사 최초로 적용한 사례다.

AI와 기계학습으로 공정 효율성↑ 고부가가치 제품 등 생산 가속화 VR·AR 활용한 안전 교육 진행

여수 공장에는 디지털 기술이 여러 곳에서 사람의 손길을 대신하고 있었다. 넓은 공장 단지 안에서 노동자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이는 곧 DX가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설비 통합 관리부터 공장 운전, 생산 최적화, 탄소 배출 저감, 안전·환경 관리까지 공장의 모든 운영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더욱이 여수 공장 내

에서 100건 이상의 DX 사례가 수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올해는 데이터 분석모델 20건을 발굴, 수행 중에 있다”며 “제품 생산계획에 AI, 대시보드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공장의 안전 관리를 비롯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단일공장 기준 세계 4위의 규모를 자랑한다. 실제로 공장 내부를 둘러보면 수많은 장치와 배관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다.

회사는 지난해 59일간 여수공장 대규모 정비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설비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데이터 분석 기반 설비 관리 전략을 최적화했으며 공장 가동률 개선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주요 회전 기계의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의 진동 분석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회전 기계에서 발생하



드론 활용 설비 검사.

는 진동을 분석해, 문제가 생기기 전 미리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기계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동 발생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공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AI CCTV로 24시간 감시·대응 임직원들 디지털 역량 내재화 교육 딥 트랜스포메이션, 100년 기업 도약

직원 안전 교육에도 VR과 AR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VR을 통해 직원들은 실제 공장 외곽에서 가상 환경에서 작업을 체험할 수 있다. 예시로 VR로 사다리를 타고 공장 내 설비를 점검하는 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미리 경험하게 된다. 해당 훈련은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작업자들의 비상 대처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CCTV에도 AI 기술을 통합해 비상 상황을 보다 빨리 알 수 있도록 했다. 화재 등의 비상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수 공장에는 약 250개의 AI CCTV가 24시간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I CC

TV는 사전에 학습시킨 작업자의 이상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요 지점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 위험 상황을 즉각 파악해 경고를 내린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공장의 모든 외곽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에 AI CCTV를 통해 특이사항 혹은 외부 침입 등 상황을 보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GS칼텍스는 DX가 단순히 소수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내재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Digital Academy’를 운영하는 등 데이터 분석, 모델링, 코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 육성에 힘쓰는 분위기다.

GS칼텍스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DX를 성공적으로 실행해,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경쟁력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존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딥 트랜스포메이션(Deep Transformation)으로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한화그룹, ‘해양 무탄소’ 연료전환 여정 제시

17일부터 미국 ‘가스텍 2024’ 참가 암모니아 가스터빈 추진 선박 공개

한화그룹이 완전 무탄소 선박을 공개하며 해양 무탄소를 향한 선도적 연료 전환 여정을 제시한다.

한화그룹의 해양·에너지 주력사인 한화오션과 한화엔진, 한화파워시스템이 공동으로 오는 17일부터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가스텍 2024’에 참가해 탄소 전허 배출하지 않는 선박과 추진 체계 및 이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다양한 친환경 솔루션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암모니아 가스터빈 추진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모형을 공개한다. 이 선박에 탑재될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엔진 작화를 위한 파일럿 오일도 사용하지 않아 완전 무탄소를 실현할 수 있다. 한화파워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이다.

암모니아 추진체계와 선박은 지난 1



한화오션이 개발한 암모니아 가스터빈 추진 LNG운반선 조감도.

월 다보스포럼에서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직접 제안한 ‘무탄소 추진 가스운반선’이다. 한화그룹은 이를 2028년까지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완전 무탄소 선박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친환경 솔루션인 리트로핏(개조) 솔루션도 소개한다.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해 추진하는 선박을 암모니아로 추진하는 무탄소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액화수소운반선(8만CBM급 LH2 Carrier), 암모니아 추진 암모니아 운반선(9만3000CBM급 NH3 Carrier) 등을 전시한다. 특히 액화수소 운반선은 한화오션의 신선종 개발 계획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다.

한화파워시스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지난해 새로 출범한 선박솔루션사업부의 선박 친환경 리트로핏 사업, 부유식 저장·재기화설비(FSRU) 개조 사업을 소개한다. 올해 초 한화그룹에 합류한 한화엔진은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 라인업과 기자재,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생애 전주기 케어 서비스인 장기 유지보수계약(LTSA)을 선보인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 해양·에너지 계열 3사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탄소 선박 밸류체인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무탄소 선박을 개발해 조선해양 시장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협력 중소기업 공동사업 전환 지원한다

중진공, 구조혁신 진단·컨설팅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 전환’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중진공에 따르면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 전환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전환을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운데 대·중견기업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전환 참여 시 구조혁신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전환 계획이 선정되면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기업이 수립한 사업전환 계획의 전환 가능성, 연관성,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튜브 영상 제공



LGU+ “내 아이 먹는 과자 안전할까?”

LG유플러스는 성장케어 플랫폼 ‘부모나라’가 아이들 간식성분을 분석해주는 서비스 ‘간식구조대’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9월 출시한 ‘부모나라’는 키즈 전용 서비스 ‘아이들나라’의 핵심 고객인 영유아 부

모들을 타깃으로 육아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부모나라는 육아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고객을 위해 자녀 연령별 맞춤형 양육 가이드, 아이와의 대화법, 자녀 성장 리포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추석 직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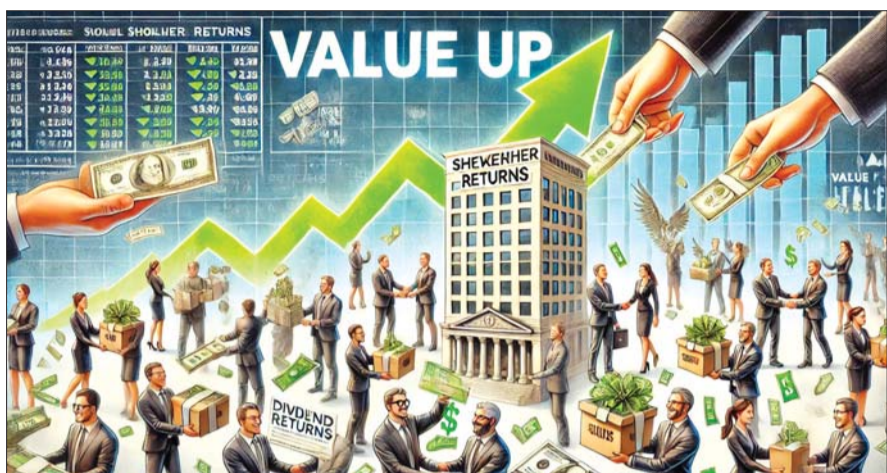
기업 CEO, 주주환원 흐름 편승 ‘분주’... 자사주 매입 실천

배당금 지급방식 차별화 위해 TR·PR형, 2개 옵션으로 나눠어 삼성전자·네이버, 자사주 매입 나서 주가 부양에도 상승세 부진 사례

추석 직후 예정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에 기업들의 주주환원 흐름이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의 자기 주식 매입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노력에도 주가 상승 흐름은 미미한 상황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27일 중에 발표된다. 이후 이달 말에 출시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배당금 지급 방식 차별화를 통해 2개 옵션으로 나뉜 ‘KRX코리아밸류업지수’와 ‘KRX코리아밸류업TR지수’가 동시에 공개된다.

분배금 지급 방식에 따라 TR(Total Return)과 PR(Price Return)로 나뉘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밸류업에 동참하는 상장사’ 이미지.

게 된다. PR형은 투자 수익 분배금을 바로바로 지급하는 형식이지만, TR형은 분배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을 구사한다.

앞서 진행된 밸류업 자문단 회의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에 대한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필요성이 논의됐던 만큼 기업들도 주주환원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막바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CEO들이 주가

부양 의지를 내비치며 자기 주식 매입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0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3억4750만원어치 자사주 500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6월에 사들인 5000주까지 약 7억1500만원어치를 매입한 것이다. 이외에도 한중희 부회장이 지난 5일 1만주(약 7억3900만원), 전영현 부회장이 5000주(약 3억76000만원)에 사들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 방어와 투자자 안심을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정부가 이달 내 향후 유망 기업들을 추려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9일 주당 16만원에 자사주 1244주를 매입했다. 이는 약 5억원 규모로, 최 대표가 보유한 자사주는 총 5718주가 된다. 이외에도 지난 6월에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가 자사주 440주를 주당 22만1000원에 사들였으며, 정신아 카카오 대표도 지난달에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1억273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하지만 CEO들의 자기 주식 매입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CEO와 임원진들이 주가 부양을 위해 나섰지만 오히려 후진하며 11일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

다. 다만 이날은 전 거래일보다 2.16% 오르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금 확대 등으로는 주가를 많이 끌어올릴 수는 없다”며 “테슬라, 아마존 등은 아예 배당을 하지 않고, 이러한 자금을 미래가치에 투자해 주가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짚었다. 이어 “기업 내부 자금이 부족할 때, 구조조정 등으로 고정비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이날 로이더통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본사가 전 세계 자회사에 영업 및 마케팅 직원을 15%, 행정 직원을 최대 30% 감원하도록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 글로벌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밸류업을 위한 주주환원 기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부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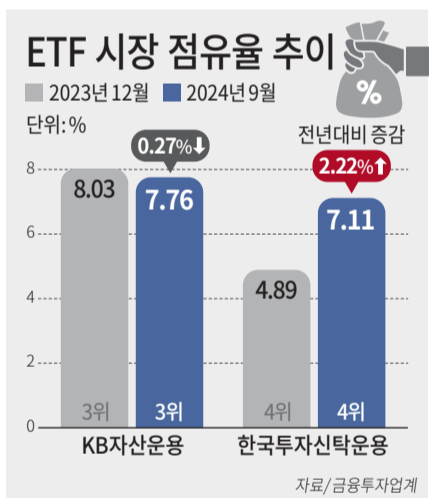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한투운용·KB자산운용, 인도시장 타깃 ETF 경쟁 ‘활활’

한투운용, 가전 등 자용소비재 업종과 인도 상위 5대 그룹주 계열사 투자 KB자산운용, 인도 니프티50 지수 추종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도 증시가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KB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운용)이 각자 인도 시장을 타깃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투운용은 지난 10일 인도 성장 업종에 투자하는 ACE 인도컨슈머파워액티브와 ACE 인도시장대표BIG5그룹액티브를



상장했다. 전자는 가전, 자동차, 헬스케어 등 자용소비재 업종 15개 기업에 투자하고, 후자는 인도 상위 5대 그룹인 타타, 릴

라이언스, 아다니, L&T, 바자즈 그룹주와 계열사에 투자한다.

해당 ETF의 설계를 주도한 현동식 한투운용 해외비즈니스본부장은 상장 당일 “내 자산을 직접 투자한다는 심정으로 인도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자사 ETF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니프티50과 같은 인도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은 많았지만, 직접 투자하는 상품은 아직 없었다”며 한투운용 인도 ETF만의 특징을 강조했다.

현 본부장은 2010년부터 12년간 중국 상하이 사무소장을 지내며 중국 시장의 투자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현재는 지리적으로 중국의 이웃국가이자 ‘넥스트 차이나’로 불

리는 인도를 직접 오가며 ‘액티브 ETF’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한투운용 관계자는 “액티브가 패시브보다 운용역 역량이 더 가미돼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지만, 그만큼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KB자산운용은 인도 니프티(Nifty)50 지수를 추종하는 ‘KB스타 인도 Nifty50 인덱스펀드’를 지난 9일 출시했다. 니프티50 지수는 인도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중 하나로, 인도 내에서 가장 큰 50개의 대형 상장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수는 인도의 경제 전반과 주식시장의 동향을 반영하는 지수로 여겨진다.

KB자산운용의 인도 ETF는 ‘패시

브’형이다. 지수를 그대로 따른다는 특징이 있어 더 적은 수수료로 ETF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인도의 대표 기업에 투자하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자산운용사는 각기 특성을 가진 ETF를 비슷한 시기에 내놓으며 ETF 시장 중위권 경쟁을 치열하게 이어나갈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ETF 시장 점유율은 KB자산운용이 3위(7.76%), 한투운용이 4위(7.11%)로 그 격차가 크지 않다. 한투운용이 전년 대비 2.22% 시장 점유율이 올랐고, KB자산운용은 전년 대비 0.27% 점유율이 하락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3위·4위 회사가 ETF 시장 점유율 1위(삼성자산운용)·2위(미래에셋자산운용)를 따라잡기는 버거운 보이지만, 중위권 쟁탈전은 상위권 쟁탈전보다 더 치열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kova@

대어급 기업 상장 시동... 증권사, IPO 주관 순위 ‘지각변동’

KB증권, 1위 → 4위로 밀려나 미래에셋증권, 4928억 ‘1위’

대어급 기업들이 기업공개(IPO) 시장에 잇따라 등장하면서 증권사들의 순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IPO 주관 순위가 변동이 일어났다. 상반기 HD현대마린솔루션 주관에 힘입어 1위에 이름을 올렸던 KB증권(3105억원)이 하반기 들어 4위로 밀려났다. 반면 상반기 961억원의 주관 실적으로 부진했던 미래에셋증권이 7~8월 코스피 상장사 산일전기와 전진건설로봇 등을 비롯해 코스닥 시장에서 뱅크웨어글로벌을 대표 주관하며 총 4928억원을 기록,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반기

기 2위와 3위에 자리했던 한국투자증권(3792억원)과 NH투자증권(3328억원)은 시프트업을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자리를 지켰다.

앞으로 케이뱅크, 더본코리아, MNC솔루션 등 대어급 기업들이 코스피 상장을 연달아 준비하고 있어 증권사 간 순위 바뀔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공모 희망가액은 9500~1만2000원이다. 공모 규모만 최대 9840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후 기업가치는 3조9586억~5조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케이뱅크의 대표 주관사 중 국내 증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이다.

더본코리아는 1994년 1월 설립한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300만주를 공모한다. 주당 희망 공모가 2만3000~2만8000원으로 총 공모 예정 금액은 약 690억~840억원이다. 공모가 상단 기준 더본코리아의 시가총액은 4050억원 수준이다. 상장 주관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맡았다.

MNC솔루션은 방산부품기업으로, 역시 1조원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B증권이 단독으로 대표 주관 맡았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와 MNC솔루션의 주관 맡은 KB증권이 다시 1위를 탈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B증권은 이들 외에도 발해인프라투자회사 등의 주관 맡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금감원 “상반기 금융민원, 전년比 16% 늘어”

홍콩 H지수 ELS 사태 영향

올해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이 작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2024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을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5만62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769건)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손해보험, 중소기업민 권역의 민원이 늘었고, 생명보험과 금융투자 부문은 감소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민원 분야는 은행민원 1만40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9%(5594건) 늘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 영향으로 펀드 관련 민원이 작

년 74건에서 올해 3918건으로 증가했으며, 신탁 민원이 56건에서 2312건으로 대폭 늘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도 같은 기간 730건에서 914건으로, 예·적금 관련 민원도 776건에서 79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대로 금융투자 민원은 41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56건) 감소했다. 증권사, 투자자문사에 대한 민원은 줄었지만 부동산 신탁사, 자산운용사의 민원은 늘었다. 증권사 민원은 27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9건) 감소했다. 내부통제·전산장애 관련 민원유형이 크게 줄었지만 주식매매, 파생상품 매매 관련 민원유형은 증가했다. 투자자문사 민원도 6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219건) 줄었다. /허정윤 기자

“과거로 시간여행 온 듯… 고택서 즐기는 커피·칵테일”

현장르포

스타벅스 장충라운지R점

국내 10번째 스페셜 스토어 오픈
지하 1층~지상 2층 180석 규모
뮤직룸 콘셉트 등 7개 공간 마련
믹솔로지 바 도입, 칵테일 선택

1960년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스타벅스가 오픈했다.

‘스타벅스 장충라운지R점’은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4길 25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장충동 골목길을 오르다 보면 1960년대에 지어진 2층 저택이 나타난다. 정문을 들어서면 차고지 벽면의 벽화를 만날 수 있다. 국내 그래픽 아티스트와 협업한 것으로 커피 원두의 재배부터 수확, 로스팅을 거쳐 한 잔의 커피가 고객에게 제공되기까지의 여정을 AR로 감상할 수 있다.

장충라운지R점은 스타벅스 리저브의 국내 도입 1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10번째 스페셜 스토어로 리저브 전용 매장이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특별한 장소에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더해 이색



① 스타벅스 코리아의 10번째 스페셜 스토어 ‘스타벅스 장충라운지R점’이 12일 오픈했다. /스타벅스
② 버번 위스키 크림 콜드브루와 딸기레몬 보드카 블렌디드. ③ 믹솔로지 푸드. /신원선 기자

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매장인 스페셜 스토어를 꾸준히 선보여왔다.

장충라운지R점은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과 테라스 등 전체 좌석 수 180석 규모로 1960년대 건축물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바탕으로 스타벅스만의 헤리티지 요소들을 음료, 인테리어, 아트웍 등 매장 전반에 반영했다.

지상 1, 2층에 조성된 총 7개의 고객 공간은 라운지, 뮤직룸 등 콘셉트를 달

리하여 마치 각각의 독립된 방처럼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1층과 연결된 야외 정원에는 좌석 40석을 설치해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다. 초인종, 벽난로, 계단, 상들리에 조명 등 60년대 저택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요소가 시선을 끈다.

장충라운지R점은 리저브 전용 매장답게 다양한 원두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출해 맛볼 수 있다. 기존 스타벅스 매장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해외 스타벅스



에 적용된 ‘믹솔로지 바’를 국내에 처음 도입했다는 점이다.

믹솔로지는 ‘Mix(섞다)’와 ‘Technology(기술)’가 더해진 말로, 주류에 다른 음료나 과일,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새로운 맛으로 즐기는 것을 뜻하며, 스타벅스 로스터리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스타벅스의 대표커피 메뉴인 에스프레소, 라떼, 콜드브루를 칵테일 음료로 개발한 에스프레소 마티니·라떼 위스

키 마티니·시트러스 콜드브루 마티니·버번위스키 크림 콜드브루 등 4종을 포함해 총 11종의 다양한 칵테일 음료를 만날 수 있다. 믹솔로지 음료를 알코올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화이트 모스카토 상그리아·딸기 레몬 보드카 블렌디드의 경우 옵션 선택이 가능하다.

아울러 스타벅스 리저브 에스프레소 샷에 초콜릿 파우더와 프렌치 바닐라 크림, 제주팔삭 셔벗을 곁들인 음료 3종을 한데 모은 ‘에스프레소 플라이트’를 새롭게 선보여 리저브 전용 매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화 음료를 소개한다. 기존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에서 즐길 수 있던 음료도 지속 이용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리저브 커피 및 믹솔로지 음료와 함께 곁들이기 좋은 디저트, 브레드, 샌드위치, 믹솔로지 푸드 등 12종을 새롭게 출시한다.

스타벅스 흥성욱 점포개발담당은 “장충라운지R점은 국내 리저브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매장으로서 고객분들께서 스타벅스의 커피 헤리티지를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기획했다”라며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셉트를 담은 매장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게임사, 콘텐츠 시장 투자 ‘사업 다각화’

크래프톤, 스폰랩스에 1200억 투자
스마일게이트·넥슨·컴투스 등 업계
영화사에 투자, 스튜디오 인수 행보

게임사들이 콘텐츠 시장에 투자하며 사업 다각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게임을 중심으로 한 서사가 이제 하나의 문화적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지식재산권(IP)을 창출하고 각 사업 영역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들이 스포츠,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시장에 투자하며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크래프톤은 최근 스포츠, 드라마 플랫폼 기업인 스폰랩스(Spoon Labs)에 12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폰랩스는 오디오 플랫폼인 스폰을 개발해 전 세계에 서비스 하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 사업 영역을 확장해 콘텐츠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다. 2분 내외의 스포츠 드라마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

폼비글루(Vigloo)를 론칭했다. 비글루는 기존 글로벌 OTT 업체와 같이 여러 국가의 특성에 맞춘 콘텐츠 큐레이션 기능을 갖췄다. 한국어, 영어, 일어를 포함해 총 7개 언어를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콘텐츠 시장에 대한 게임사들의 투자는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스마일게이트는 올해 1월 영화사 리얼라이즈픽처스와 함께 각각 30억원을 출자해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스마일게이트리얼라이즈를 설립하고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에 120억원을 투자했다.

넥슨 역시 지난해 4월 개봉한 스포츠 영화 ‘리버우드’에 투자를 진행했다. 넥슨에 따르면 게임과 관련성 없는 스포츠 영화에 대한 투자로 “스토리텔링이 곧 IP다”라는 이정현 넥슨 대표의 지론에 따라 이뤄졌다.

컴투스 역시 콘텐츠 제작사 콘텐츠 제작사 위지웍스튜디오를 인수하는 등 콘텐츠 시장 투자를 이어간 바 있다.

그러나 크래프톤은 투자 금액을 늘리며 더 과감한 행보를 이었다. 크래프톤

에 따르면 이번 스폰랩스 투자는 크래프톤이 지금까지 진행한 비관련 사업 다각화 투자 중 가장 큰 규모다.

크래프톤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이어왔다. 지난해 6월에는 공유오피스 브랜드 ‘패스트파이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주회사 패스트트랙아시아에 약 220억원을 투자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모바일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앱 마켓 윈스토어에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스폰랩스에 대한 12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과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다.

콘텐츠 시장에 대한 투자를 가장 크게 늘린 이유는 사업 간 연관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스폰랩스의 안정적인 플랫폼 기술력과 글로벌 서비스 성공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어 “스포츠 드라마 시장의 성장 가능성, 새로운 IP의 원천 확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에 주목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자큐보’ 중남미 공략

온코네티라퓨틱스, 멕시코에 기술수출

국산 37호 신약 ‘자큐보’가 중남미 19개국으로 진출해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본격화한다. 제일약품 신약개발 자회사 온코네티라퓨틱스는 멕시코 제약사 라보라토리 샌퍼와 칼럼 경쟁적 위

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의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인 ‘자큐보(자스타프라잔)’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멕시코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총 19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기타 계약 조건

은 양사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온코네티라퓨틱스가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을 넘어 기술이전으로 중남미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남미의 제약·바이오 산업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6%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고, 오는 2027년에는 7.8%로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최고 32%’

중기중앙회, 유통사 입점 900곳 조사
백화점 평균 22.4%, 대형마트 18.6%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에 입점한 중소기업이 내는 판매수수료율이 최고 3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최고 수수료율은 30%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입점한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특약매입·임대료 거래 시 입점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이 평균 22.4%, 대형마트 평균 18.6%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수수료율은 백화점이 32%, 대형마트가 30%였다. 직매입 거

래 시 대규모 유통업체 마진율은 백화점이 평균 22.9%(최고 35%, 최저 10%), 대형마트는 평균 20.4%(최고 42.9%, 최저 4.8%)였다.

거래비용 부담 수준에 대해 입점 중소기업 10곳 중 7곳(백화점 67.8%, 대형마트 68.3%)이 전년에 비해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입점업체 비율은 백화점(0.2%)과 대형마트(2.5%) 모두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 40.0%가 대형마트를 통한 지난해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는 ‘매출 규모가 늘었다’는 응답(10.5%)의 4배에 달했다. 대형마트 매출 감소 업체 중 80.6%는 온라인 유통 시장 성장이 대형마트를 통한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한화솔루션, 230억 투입 반도체 산업생산

반도체 생산능력 최대 1만톤으로

한화솔루션이 전력케이블 핵심소재인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230억원을 투자해 초고압·고압(E/HV)급 반도체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8000톤(MT) 증설하고 100% 자회사 한화컴파운드 여수 공장에서 상업생산을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증설로 한화솔루션의 E/HV급 반도체 생산 능력은 최대 1만톤(MT)으로 늘어난다.

반도체는 케이블의 파손을 방지하고

전기력을 차단해 방전을 막는 소재다. 설치 후 평균 25년 이상 사용하는 전력케이블의 내구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재다. 대륙간 전력망과 해상풍력발전소 확대 등에 쓰이는 장거리 송전용 초고압 케이블은 고품질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번에 증설한 E/HV급 반도체 생산 시설에는 한화솔루션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하는 에틸렌·부틸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EBA)를 원재료로 사용한다. 한화솔루션은 반도체의 기초 원료인 EBA를 개발해 지난 2022년 국내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했다. /양성운 기자 ysw@

13억 임금 밀리고 SNS 호화생활... 상습 체불사업주 구속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지도
청산노력·상습체불 사업주 엄정 수사
지방노동청, 현장 찾아 지도하기도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으로 체불임금을 즉시 청산했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북부지청은 지난 5일 기관장 회의 직후 근로자 74명의 7월 임금(1억 2000만원)이 체불된 사업장을 방문해 당일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했다. 서울남부지청은 적극적인 청산지도로 큐텐의 한 계열사는 체불된 7월 임금(9억50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8월 임금(9억50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여수지청장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피해근로자가 311명에 이르는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지난달 29일 체불청산기동반과 현장으로 달려가 체불원인을 파악했다. 지속적인 청산지도로 지난 9일 체불임금 16억5000만원이 전액 지급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약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직후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 감독 중 2개소에 대한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화생활을 공개하고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320여 건(임금체불 13억원)의 신고사건이 제기돼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용부는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된 체불 외에도 약 6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5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해당기업 대표는 감독 기간 중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체불임금은 전혀 청산하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해 처벌을 면한 것으로 확인돼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또다른 특별근로감독대상인광주의 한 기업은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고도 의도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사건이 제기되면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82건, 체불임금도 2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감독으로 약 1억3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청산 노력과 함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씨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각 공사 현장별로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1일~3일 단기간 고용했다. 현장별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현장별 임금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상대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하며,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도 임금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남은 집중지도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세종=김대현 기자 kdh@metroseoul.co.kr

한수원

신한울3,4호기 건설 착수

신한울3,4호기가 건설허가 신청 8년 만에 허가를 받고 본격 공사를 시작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2일 신한울3,4호기 건설허가를 취득하고, 13일 본관 기초 굴착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공사 시작에 앞서 13일 신한울3,4호기 건설부지에서 관계사 임직원들과 함께 안전다짐 결의대회를 갖고, 명품원전 건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을 쓸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신한울3,4호기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중단이 결정되며 사업을 중단했었다. 이후 2022년 7월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됐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6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신한울3,4호기는 국내에 7,8번째로 건설되는 140만kW(킬로와트)급 신형 원전(APR1400) 노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갑질' 막는다

공정위, '구입강제품목 변경 협의' 거래조건 변경시 준수 절차 등 규정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를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본부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4일 '가맹사업거래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방향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

가 도입됐고, 이는 오는 12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거래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신규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구입강제품목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 축소', '구입강제품목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열거

해 어떠한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변경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했고, 협의 방식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주가 손쉽게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신한울3,4호기 건설공사 부지. /한국수력원자력

산업부

韓, 첫 세계표준포럼 유치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가 내년 첫 개최하는 기업인 중심 세계표준포럼이 한국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13일까지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내년 12월 개최되는 '제1회 세계표준포럼(World Standards Forum)'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ISO는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함께 기업 중심의 세계표준포럼 출범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총회에서 개최장소를 확정하고 참석대상, 주요 일정 등 운영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세계표준포럼은 우리나라 최초의 ISO 회장인 조성환 회장(현대모비스 고문)이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표준 사용자인 세계적 기업의 경영진이 참여하는 차세대 표준포럼을 3대 국제표준기구 협의체인 세계표준화협의체(WS-C)에 제안해 출범하게 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친환경차·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

산업부, '韓-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 기로 했다.

한국과 필리핀이 친환경차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경협위)'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경협위에서 수석대표인 양병내 통상차관보와 알란 겐티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은 한-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2023년 9월 서명)로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주요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한-필리핀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

기로 했다. 또 양측이 출범 초기부터 협력해 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의제별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섬나라인 필리핀과 조선 강국인 한국의 강점을 살려 해상풍력, 선박 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필리핀용 전기버스 개발 등 친환경자동차 분야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핵심 원자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반도체산업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고도화

산업부, 삼성전자 등 업무협약

반도체산업분야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고도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판교 소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모노실란(SiH4,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실리콘 절연막 등 형성시 사용) 등 다양한 고압가스들이 사용되고 있고, 산업 특성상 신소재의 사용, 신기술 도입 등 기술혁신이 급격히 이뤄짐에 따라 산업부는 그간

업계 현장 애로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반도체산업분야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고도화를 위한 민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계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우리 반도체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안전 확보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동의 한 순간 · 물류의 매 흐름 AI시대의 FLOW전략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2024.9.25(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 | |
|--|--|
| ◎ 행사명 :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 주제 : 이동의 한 순간 · 물류의 매 흐름, AI시대의 FLOW전략 |
| ◎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14~17시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
| ◎ 문의 :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지난해 학자금대출 연체자 '2만명'

연체금액 1091억... 3년간 최다·최고
지난해 대출받은 인원 19.7만명

청년 빈곤문제,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대출연체 등으로 확대 지적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
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자는 2만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
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
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
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
제적 부담이 크다.

연체인원은 ▲2021년 1만6669명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 현황(2021년~2024년)〉

(단위: 명, 억원 / 각 연도 말 기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연체인원	16,669	17,774	21,458	20,615
연체잔액	835	899	1,091	1,066

/문정복 의원실

2022년 1만7774명 ▲2023년 2만1458
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만615
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
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
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
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
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
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
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
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
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 빈
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
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
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
간이 확대됐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
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서 머물러
있다"라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
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
도록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
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대·고려대, 수시접수 지원자 늘었다

서울대 수시 경쟁률 9.1대 1로 상승
고려대, 20.5대 1... 2배 가량 올라
전국 의대 경쟁률은 낮아질 전망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
대와 고려대의 경쟁률이 일제히 오른 것
으로 나타났다. 올해 입시부터 전국 의
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두 대
학 모두 의대 수시 경쟁률도 상승했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1일 18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서울대 수시 모집
지원자 수는 지난해 1만9279명에서 1
만9820명으로 541명(2.8%) 증가했다.
경쟁률도 8.8대 1에서 9.1대 1로 상승
했다.

고려대 수시 모집 지원자는 지난해
3만3178명에서 5만4041명으로 62.9%
p(2만863명) 늘었다. 경쟁률은 13.0대
1에서 20.5대 1로 두 배 가량 올랐다.

특히 올해부터 정원이 증원돼 관심을
끄는 '의대'의 경우 두 대학 모두 지원
자 수가 크게 늘어, 지난해 3027명에서
3335명으로 308명(10.2%) 증가했다.

서울대 의대 지원자 수는 1215명이
던 지난해보다 73명 더 늘어 1288고, 고
려대 의대는 지원자 수가 지난해 1812
명에서 235명(13.0%) 늘어 2047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의대의 경
쟁률은 지난해 12.66대 1에서 13.56대
1로, 고려대 의대는 27.04대 1에서
30.55대 1로 상승했다.

서울대 수시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
은 학과는 인문계열의 경우 18.5대 1을



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입시 학원의 모습. /뉴스1

기록한 사회학과 일반전형이다.

자연계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
된 스마트시스템과학과 일반전형 경쟁
률이 19.50대 1로 가장 높았다.

고려대는 수시모집에서 인문계의 경
우 논술전형 자유전공학부가 경쟁률이
높은 91.0대 1을 기록했다.

자연계열에서는 논술전형의 전기전
자공학부가 10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
률을 나타냈으며, ▲컴퓨터학과 90.27
대 1 ▲인공지능학과 78.00대 1 순이다.

의대 증원 여파로 올해 의대 지원건
수는 전년보다 늘어나는 가운데, 전국
의대의 평균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전
망이다.

한편, 지난 9일 시작된 대입 수시모
집 원서 접수는 11~13일 사이 대학별
로 마감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국토부, 재건축·개발 신속추진 약속

서울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서
상황 점검하고 주민간담회 열어
8.8대책 통한 지원방안·의견 청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
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정
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하 8.8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
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
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
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도 8.8대책에 발맞춰 진행 사
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
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
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 계획을 주민
분에게 설명하고, 사업 현장의 애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에서 세번째)이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언론사 인터뷰에 답
변하고 있다. /서울시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
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
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참석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
부 장관은 주민과 함께 노후된 주택 단
지를 순회했다. 주민들은 준공 후 35년
이 경과해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 난
방·수도배관 등도 노후되는 등 주차장,
복리시설 등의 외부 시설이 부족하다
는 의견을 냈다.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

서는 8.8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
안,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주민부담을 줄
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
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중 시행 예
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
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을 줄이고 통합협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213명 수시채용

오는 19일부터 이메일 접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설
세훈)은 신규 조리실무사 213명을 수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시채용은 조리실무사결원이
많은 강동송파 및 강남서초 교육지원
청의 학교 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을 위해 진행한다.

조리실무사 최종 합격자는 11월에
강동송파,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소속
공립학교에 배치될 계획이며, 3개월의
수습 기간과 수습평가를 거친 후 정년
(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갖게 된다.

응시자격은 18세(2006. 9. 5. 이전 출

생자)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포함, 외국인 제
외)로 성별 및 지역(거주지)을 제한하
지 않으며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다.

응시원서는 오는 19일 9시부터 23일
18시까지 5일간 이메일로 접수받으며,
자격요건, 채용방법 및 일정 등 공고 세
부내용은 채용시스템 또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조리실무사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관심 있
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
라며 "학교 급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파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확정

내년 예정... 핵심 인프라 확충 포함

파주시는 11일 발표된 '경기도 민선
8기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방안'에 파주의 주요 숙원사업들
이 포함되면서, 100만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경기 북부의 70년 넘은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파주
이전, 철도·하천·도로 등 핵심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경과원의 파주 이전이 2025년
으로 명확히 예정되었으며, 청사 신축
이 지연될 경우 임차 방식으로라도 주
요 핵심부서를 먼저 이전하겠다는 경기
도의 계획이 발표되어, 파주시민들의
오랜 요구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이루
어졌다. 파주시는 2021년 공공기관 유
치 확정 후 빠르게 행정 절차를 완료하
고, 시민 주도의 서명운동까지 전개해
경과원의 신속한 이전을 촉구해왔다.

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파주발 고속철도(KTX) 신설 계획이
다. 이 사업은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속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파주시의 광역
교통망을 확장해 관광과 경제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파주에서 양주·포천·남양
주를 잇는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
로 신설, 글로벌 AI 클러스터 조성, 반
려동물 친화공간 조성 지원, 도로·하천
사업의 조기 착공과 준공, 군사시설 보
호구역 축소 등이 포함되어 파주시의
도시개발과 인프라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선제적 추
진방안은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청사
진을 그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경
기도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며
52만 파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고 밝혔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부산시-서울시, 위케이션 활성화 박차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에
부산형 위케이션 사업 지원

부산시는 서울시와 함께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형준 시장과 오
세훈 서울시장은 부산시청에서 '부산
시-서울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6일 각 지역 위케이션
사업 수행기관인 부산장조경제혁신센
터와 서울경제진흥원은 '부산형 위케

이션 활성화 사업'과 '서울 소재 중소
기업 위케이션 지원사업'을 구체적으
로 연계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부산형 위케이션에 참여
함으로써 ▲숙박시설 및 업무공간 이
용 ▲네트워킹 행사 등을 활용한 지역
내 스타트업, 관광기업 및 소상공인 간
의 비즈니스 협업 관계 형성 ▲관광·문
화상품 체험 ▲기본 숙박 지원금 외 추
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다이소·무신사 넘어 편의점까지 유통업계, 뷰티상품 강화 나섰다

코리아세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다이소 47개 브랜드 346종 선배 컬리 내달 DDP서 컬리뷰티페스타 무신사 뷰티페스타 1.8만명 찾아

‘뷰티’ 분야를 놓고 유통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과거 올리브영, 시코르 등 뷰티 전문 몰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편의점, 무신사, 다이소 등 다양한 채널들도 뷰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각광받자, 이 틈을 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뛰어들고 있다. 특히 편의점 업계가 이례적이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했다. 취급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 유통, 판매 등 거래를 위한 차원이다.

화장품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해 만든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한다. 세븐일레븐은 2014년 P&D코스캠과 협업해 5~10ml 소용량 화장품 6종을, 2017년에는 비씨엘과 손잡고 색조 화장품 브랜드 ‘0720’을 선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은 “향후 PB 화장품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편의점 업계에서 뷰티 분야는 매해 성장하고 있다. CU의 연도별 화장품 전년 대비 신장률은 2022년 24.0%, 2023년 28.3%, 올해 상반기는 14.5%로



무신사 뷰티페스타 전경. /무신사

매해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고물가가 장기화되자 PB뷰티 상품에 주력한 편의점도 있다. GS25는 듀이트리, 메디힐, 아크네스와 협업해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다이소도 뷰티카테고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실제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다이소 추천 뷰티템 등의 콘텐츠를 대거 업로드하고 있다.

다이소는 올해 상반기 20개 브랜드를 신규로 입점시켜 총 47개 브랜드에서 346종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마몽드’ 등 대형 화장품 브랜드들도 다이소에 입점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컬리는 다음달 10~13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컬리 뷰티페스타 2024’를 연다. 컬리가 뷰티를 주제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페스타에선 랑콤, 에스티로더, 실화수, 시슬리, 끌레드브 보페 등 백화점 외에 보기 힘든 럭셔리급 브랜드

이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 K뷰티 브랜드도 입점한다.

무신사도 뷰티 카테고리 강화를 위해 지난 6~8일까지 서울 성수동서 41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무신사 뷰티페스타’를 열었다. 이 기간 1만8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신사 뷰티’를 알리기 위한 첫 대 규모 오프라인 행사다. 회사측은 행사에 참여한 41개 뷰티 브랜드 중 약 80%가 중소·중견 K뷰티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유통기업들이 뷰티 카테고리 강화에 나서면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뷰티 업계 관계자는 “뷰티 브랜드 기업 입장에서선 입점시키기 위한 채널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K뷰티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데다 다양한 유통업들이 뷰티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들끼리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롯데백, 보랭가방 업사이클링 앞장

총 5만여개 회수... 마트 등도 동참 파우치 등 만들어 고객 감사품 증정

롯데백화점이 명절 선물 포장에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보랭가방’ 업사이클링에 앞장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2022년 추석부터 업계 최초로 명절 선물과 함께 받은 보랭가방을 활용한 친환경 프로모션을 진행해,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ESG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설까지 총 5만여개의 보랭가방이 회수되었으며,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사들에서도 유사 프로모션을 시행하며 롯데백화점의 뜻 깊은 행보에 동참해오고 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ESG 캠페인인 ‘리얼스(RE: EARTH)’의 일환으로 단순히 보랭가방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 감사품으로 업사이클링해 더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2년에는 회수된 보랭가방을 활용해 크로스 파우치를 제작했으며, 2023년에는 피크닉 매트와 와인 보틀백을 만들어 총 1만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감사품으로 증정했다.

이번 추석에도 오는 18일부터 내달 9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점에서 ‘보랭가방 회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올 추석에 받은 롯데백화점 전용 선물 세트 보랭가방을 가까운 롯데백화점에 위치한 사은행사장에 반납하면, 보랭가방 1개당 엘포인트(L.POINT) 5000점을 적립해준다. 회수된 보랭가방은 하반기 중 새로운 굿즈로 업사이클링해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고객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자 보랭가방 반납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최빛나 기자

LF 헤지스, SS컬렉션 런던 패션위크 참가

중 빠오시나오그룹과 공동 기획

생활문화기업 LF의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가 런던 패션위크에 참가한다.

LF의 브랜드 헤지스는 2025년 봄·여름 컬렉션 패션쇼를 런던 패션위크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런던 패션위크에서 2020년 봄·여름 컬렉션을 선보인 이후 두 번째 참가다.

이번 패션쇼는 LF와 헤지스의 중국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 중인 빠오시나오그룹이 공동으로 기획하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 징둥닷컴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LF에 따르면 이번 런던 패션위크에서는 헤지스의 영국 브랜드 정통 분위기를 기반으로 김훈 헤지스 글로벌 총괄 CD와 중국 빠오시나오그룹이 함께 디자인한 2025년 봄·여름 시즌과 2024년 가을·겨울 시즌 컬렉션이 공개될 예정이다.



헤지스 런던패션위크 2020 SS 런웨이 행사 당시 사진. /LF

총 세 가지 컬렉션에 40개의 룩이 준비됐다. 대표적인 컬렉션으로 헤지스는 영국 로잉 패션의 분위기를 담은 2025년 봄·여름 시즌 ‘헤지스 로잉 클럽’을 선보인다. 로잉 패션은 영국 전통 조정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아 세련되면서도 고전적인 스포츠 웨어 스타일을 반영한 디자인이다.

이 외에도 영국 정통 클래식을 표현한 2024년 가을·겨울 시즌 ‘슬론 레인저’와 2024년 가을·겨울 ‘스키 컬래버’ 상품군도 공개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롯데칠성음료 ‘새로’ 누적판매 4억병 돌파

출시 2주년... 제로슈거 소주 대표 ‘새로 살구’ 5개월만에 1000만병

롯데칠성음료가 2022년 9월 중순 첫 선을 보인 ‘새로’가 출시 2주년을 맞았다. 새로는 출시 2주년을 앞둔 지난 7월 출시 22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4억병을 돌파하며, 국내 소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제로 슈거 소주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새로는 출시되자마자 국내 주류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했다. 출시 이후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 병을 달성한 데 이어 7개월만에 1억병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22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4억병을 돌파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58만병이 팔린 셈이다. 한 병의 높이가 20.5cm인 새로 4억 병을 넘으면 서울에서 부산(430km)을 95회 왕복할 수 있고 지구를 두바퀴 돌고도 남는 거리가 된다.

지난 4월에는 새로에 살구 과즙을 더해 소주의 쓴맛을 줄이고 상큼함을 더한 ‘새로 살구’를 선보였다. 저도주와 다양한 주종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새로 살구는 출시 5개월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병을 돌파하며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새로와 새로 살구는 소비자와의 접

점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했다. 새로는 출시 직후 수도권 내 유통인구가 많은 상권에서 게릴라성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대중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또 지난해 9월 새로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새로구미의 생일 잔치를 콘셉트로 한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에서도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팝업스토어에는 일 평균 방문자 1000여명이 넘게 방문했다.

한편, 새로운 신규 광고 ‘새로구미 편: 산 257’은 두 편으로 구성됐으며, 본편 1부는 9월 30일, 2부는 10월 8일 공개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광동제약, 치올페이스트 웹페이지 공개

광동제약은 치약형 잇몸약 ‘광동치올페이스트’ 브랜드 웹페이지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브랜드 웹페이지에서는 국내 최초 히노키티올 단일 성분을 함유한 광동치올페이스트의

성분 및 효능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광동제약은 이 공간을 통해 제품 특징, 일반 치약과 병행 사용법 등을 소개하고, 천연물 유래 주성분의 효능과 근거가 되는 학술 자료도 제공한다.

히노키티올 성분은 편백나무에서 발견된 성분으로 항산화·항염증·항균·항바이러스 작용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동치올페이스트는 치은염, 사랑니주위염 및 치조농루, 구내염, 설염, 입술염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구강 질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광동제약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ce236@

CJ제일제당, CGV서 ‘씨네밀’ 5종 선보

불고기 김치볶음밥·떡볶이 등

CJ제일제당이 CGV 영화관에서 즐기는 ‘트레이푸드’ 제품을 선보이며 B2B(기업 간 거래) 분야 사업을 다각화한다.

CJ제일제당은 CGV와 협업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F&B 솔루션 ‘씨네밀(Cinemeal)’을 론칭하고 신제품 5종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Cinema(영화관)’와 ‘Meal(식사)’의 합성어인 ‘씨네밀’은 말 그대로 영화를 보며 즐기는 푸드를 의미한다.

새로 선보인 ‘씨네밀’ 메뉴는 불고기 김치볶음밥, 소시지 에그브런치, 떡볶이, 비프스튜, 소고기 버섯죽 등 5종이다. CJ제일제당이 그간 쌓아온 기내식 개발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영화관에서 간편하게 한끼 식사가



CGV 씨네밀. /CJ제일제당

지 쟁길 수 있는 메뉴들을 개발했다. 팝콘, 핫도그 등 기존 극장 먹거리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먹거리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씨네밀’은 CGV 직영점 101곳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이번 론칭을 기념해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소비자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사회공헌 부전자전... 故 안유수 기업가정신 실천하는 두 아들

〈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
매년 백미 기부... 누적 37억 달해

안정호 시몬스 대표
중증 질환 소아청소년 치료비 지원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 / 안정호 시몬스 대표

부전자전이다. 에이스침대 창업주인 고 안유수 회장의 선행을 침대업계를 이끌고 있는 두 아들이 고스란히 이어받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12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안성호 이사장은 최근 10kg 짜리 5900포, 금액으로는 1억4000만원 어치의 백미를 경기 성남시에 기탁했다. 기부한 쌀은 성남시에 사는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돌아간다. 에이스경암이 추석과 설을 맞아 성

남시에 쌀을 기부한 해만 올해로 26년째다. 그동안 지역에 전달한 백미는 누적 15만4260포, 금액 환산시 약 37억원에 달한다.

성남은 에이스침대가 성장을 본격 시작한 근거지다. 지난해 작고한 안유수 회장은 1963년 당시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에이스침대의 전신인 에이스침대공업을 설립했다. 이후 인근 성수

등을 거쳐 경기 성남시에 터를 잡았다. 에이스침대는 지금도 본사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05번길 42'로 돼 있다. 이후 생산공장은 충북 음성과 경기 여주로 옮겼지만 물류센터 등은 여전히 본사 주소지에 두고 있다.

장남인 안성호 현 에이스침대 대표는 부친에 이어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이사장을 겸임하며 뜻을 이어가고 있다. 에이스경암은 올해 초엔 경기 이천에서 운영하던 에이스경로회관을 신축·재개관하고 하루 평균 200명 분량의 무료 식사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최초의 루게릭 요양센터 건립 기금 조성을 돕기 위해 1억원의 성금을 승일희망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안성호 이사장은 "기업이윤을 사회

에 환원한다'는 선친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ESG경영을 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의 차남인 안정호 대표가 이끄는 시몬스도 최근 경기 이천시에 4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시몬스 침대는 2018년 9월부터 매년 추석과 설에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용품을 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만 5억원이 넘었다.

시몬스는 특히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들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매년 거액의 치료비를 기부하고 있다. 2020년부터 매년 3억원씩 지원을 시작한 기부금은 올해까지 15억원에 달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IG넥스원,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LIG넥스원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LIG넥스원은 지속적인 신규 채용과 다양한 복지 제도 운영을 인정받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뽑혔다. 안익성 LIG넥스원 경영기획실장(오른쪽)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IG넥스원



현대차그룹, 충북서 '아이케어 업' 행사

현대차그룹은 지난 9~11일 충북 제천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200명을 대상으로 '아이케어 업'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이케어 업은 아동보호 기관 상담원들이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대차그룹의 새 사회공헌 활동이다. /현대차그룹



조중래 대표, 중앙대 발전기금 1억 쾌척

조중래 늘걸애라이프(주) 대표가 모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중앙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중앙대는 11일 서울캠퍼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중래 늘걸애라이프(주) 대표(왼쪽)와 박상규 중앙대 총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대

롯데장학재단, 여성청소년 건강 챙긴다... 2억 상당 위생용품 지원

신격호 롯데 플레저박스 전달

롯데장학재단이 9~18세 전국의 여성청소년 3280명에게 1억8000만원 상당의 여성위생용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부 대상은 여성 청소년 자립지원관 13개소, 여성 청소년 중장기 센터 19개소, 여성 청소년 그룹홈 250개소 등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그룹홈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중앙기관의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 3280명으로 지원 금액은 총 1억8600만원 상당이다. 재단은 8월경부터 물품 선정을 시작해 각 기관에서 모집을 진행해 이 달까지 전국의 기관으로 배송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달식은 11일 서울시립 금천 여자단기 청소년 센터에서 롯데장학재단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11일 서울시립 금천 여자단기 청소년 센터에서 신격호 롯데 플레저박스 전달식을 개최했다.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왼쪽 네번째), 롯데복지재단 이승훈 이사장(왼쪽 다섯번째), 한국 청소년 쉼터 협의회 고승덕 이사장(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 롯데복지재단 이승훈 이사장, 한국 청소년 쉼터 협의회 고승덕 이사장, 여성청소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롯데재단의 플레저박스는 '기쁨과 즐거움을 담은 상자'라는 뜻으로 2015년 롯데복지재단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약 6만8000개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 사업명을 '신격호 롯데 플레저박스'로 변경하고, 롯데장학재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의 물품지원 사업도 신격호 롯데 플레저박스로 사업명을 통일했다. 상세 구성물품과 지원대상은 재단별로 상이하다.

올해의 '신격호 롯데 플레저박스' 지원으로는 지난 5월에 롯데삼동복지재단이 신격호 창업주의 고향인 울산시 삼동면 어린이에게 2000개(1억2000만원), 롯데복지재단이 독거노인에 3000개(3억원), 6월 롯데장학재단이 쪽방촌에 2273개(2억원)를 전했으며, 12월에는 롯데삼동복지재단이 울산시 삼동면에 2000개(1억2000만원)를 전달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인사

◆ 노인의료나눔재단 ◇김옥봉 사무처장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장)

부음

▲ 강상모씨 별세, 강훈(SK증권 고문·전 홍보실장)·강열·강연씨 부친상=12일, 건양대 부여성장례식장 1층 특1호, 발인 14일. 041-

837-4441

▲ 강희철씨 별세, 이선근(전 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씨 장인상=12일 오전 4시, 대전 성심장례식장 8호실, 발인 14일. 042-522-4494

▲ 최병직(향년 84세)씨 별세, 이현심씨 남편상, 최치환(한국NGO신문 부사장)·최경환(소망상사 대표)·최옥경·최미경·최은경·최은정·최예주씨 부친상=12일 오전 3시, 태안군 보건의료원 상례원 1호실, 발인 14일. 041-671-5243

LG전자 임직원, 몽골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라이프스굿 봉사단, 학교 시설 보수

LG전자 임직원들로 구성된 '라이프스굿(Life's Good) 봉사단이 몽골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봉사단 30여명은 현지시각 지난 9일부터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차량으로 1시간 떨어진 가초르트 지구의 사하르트 79번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학교는 3000명이 재학 중으로, 봉사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보수 공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이 고등학교 노후 시설 개선 활동을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은 "글로벌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세계 곳곳의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미래에셋생명, '행복모따리 키트' 나눔

미래에셋생명은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층 어르신 50여명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포장해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자택을 방문해 '행복모따리 키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미래에셋생명



소진공,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석을 앞두고 특별할인 판매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유통 방지에 나섰다. 12일 소진공에 따르면 상인회 등과 연계해 부정유통 방지 현장계도 활동,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소진공

오늘의 날씨

9월 13일 (금)
음력 : 8월 11일

수도권 날씨
25~29°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12 | 해질 / 18:43

연천 23/28, 동두천 23/28, 가평 22/28, 파주 23/28, 서울 25/29, 양평 24/29, 인천 25/29, 수원 24/29, 용인 25/29, 평택 25/31, 백령도 24/2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하이닉스 "‘해피 패밀리’ 장학금 신청하세요"

협력사 상생 강화... 내달 14일까지 접수

SK하이닉스가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협력사와의 상생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2024 Happy Family(해피 패밀리)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협력사에 재직 중인 구

성원의 초·중·고, 대학(원)생 자녀로 회사는 심사 절차를 거쳐 ESG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협력사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협력사당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초·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원)생 4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김서현 기자 seoh@



MUSEUM L

다양한 장르의 특별한 전시 **뮤지엄엘**

GRAND OPEN

오픈 기념 할인 & 이벤트 진행중

MONA LISA 모나리자 이머시브

2024.07.26 - 2025.07.25 뮤지엄엘 1관

ALBERTINA MUSEUM COLLECTION

ALEX KATZ

알렉스카츠

2024.07.26 - 2024.11.17 뮤지엄엘 2관

위대한 농구선수 75인 전

2024.07.26 - 2024.12.15 뮤지엄엘 3관



@museum.l

카메라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오픈특가, 카페할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뮤지엄엘 인스타그램> 링크로 연결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 상상플랫폼 1층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5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송뽕송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예매하기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출연 김남호 김늘메 김준희 김민주 임재혁 정지환 이서정 이하정 차은진 김민성 서찬양 장이슬 석우성 손슬기 윤환호 김진솔 정다운 최린 김상원 서태이 양승환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운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추석을 더 풍성하게 해줄 와인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왼쪽부터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 캔달잭슨 빈트너스 리저브 카베르네 소비뇽, 몬테스 퍼플 앤젤, 1865 셀렉티드 콜렉션 올드 바인, 1865 셀렉티드 콜렉션 데저트 밸리 시라. /각 수입사 취합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추석이 코 앞인데 올해는 열대야로 에어컨을 켜고 가족들과 와인잔을 기울여야 할 수도 있겠다.

이번 추석의 첫 잔은 누가 뭐래도 화이트 와인이다. 전 같이 기름진 명절 음식에 산도 높은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30도를 넘는 추석 더위를 식혀줄 최고의 아이템이다.

먼저 소비뇽 블랑이다. '라파우라 스프링스 소비뇽 블랑'은 믿고 마신다는 뉴질랜드 말보르 지역에서 만들었다. 라파우라 스프링스 와이너리의 기본급인데 지난 2021년 와인스펙테이터가 선정한 100대 와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가성비가 좋다. 자몽과 열대과일 등 과일향에 산도도 바삭거리

기 보단 상큼하게 어우러져 식전에 와인만 마시기도 좋고, 해산물이나 나물, 전과 내놔도 어울린다.

'베라몬테 레세르바 소비뇽 블랑'은 칠레 카사블랑카 밸리의 소비뇽 블랑 100%로 양조했다. 베라몬테는 미국 나파밸리 프리미엄 와인 컨테스타를 설립한 어거스틴 후네우스가 고향인 칠레로 돌아와 카사블랑카 밸리의 훌륭한 테루아를 보고 설립한 곳이다. 백도에 허브,

감귤류의 향과 함께 미네랄 풍미도 느낄 수 있으며, 균형이 잘 잡힌 산도가 매력적이다.

화이트 와인 정통파의 선택은 샤도네이다.

'덕흔 디코이 샤도네이'는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해 입안에서 바닐라향과 함께 감귤 등 과일향이 풍부하고, 미네랄 풍미가 생생한 산도와 잘 어울린다. 디코이는 '와인에호가들을 위

한 럭셔리 데일리 와인'이라고 불릴 만큼 덕흔의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다. 어린 빈티지에도 마시기 편하고, 음식도 다양하게 매칭하기 좋다.

명절 상차림에 고기가 빠질 리 없다. 갈비찜이나 산적 등 양념이 강한 육류 요리에는 양념 맛에 밀리지 않을 묵직한 탄닌의 레드와인이다.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은 와인은 몰라도 다 안다는 몬테스의 와인이다. 1987년 몬테스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와인이자 칠레에서 최초의 프리미엄 와인으로 기록되는 와인이다. 다채로운 베리류에 시가박스, 바닐라와 민트 향 등이 복합적이며, 과실미와 오크의 느낌이 부드럽고 우아하다. 적당한 무게와 구조감으로 바로 마시기도 좋지만 10~15년 묵혀도 될 정도로 숙성잠재력이 있다.

'캔달잭슨 빈트너스 리저브 카베르네 소비뇽'은 미국 캘리포니아 카버네 소비뇽 품종의 표본같은 와인이다. 검은 과실의 향이 강하게 느껴지며, 탄닌은 부드러우면서 풍부하다. 불고기 같

은 양념 육류와 마셔도 밀리지 않는다. 추석 선물로는 프리미엄 레드 와인이다.

'몬테스 퍼플 앤젤'은 몬테스의 와인 가운데 최상위인 아이콘 시리즈다. 블루베리와 자두, 향신료향이 어우러지며, 좋은 카르메네르담게 탄닌은 농밀하고 부드럽다. 고기는 물론 한식과 두루 마시기도 좋다.

'1865 셀렉티드 콜렉션 올드 바인'과 '1865 셀렉티드 콜렉션 데저트 밸리 시라'는 칠레 와인 1865의 프리미엄 라인이다.

'1865 셀렉티드 콜렉션 올드 바인'은 평균 수령 70년 이상의 포도나무에서 재배한 포도만으로 만들었다. 검붉은 과실 풍미에 흑후추 등 향신료 풍미가 인상적이다.

'1865 셀렉티드 콜렉션 데저트 밸리 시라'는 시라 품종으로는 칠레에서 프리미엄 산지로 꼽히는 엘퀴 밸리에서 만들었다. 향신료와 구운 육류 풍미, 올리브 등 향이 복합적이고, 우아한 탄닌과 구조감, 균형을 느낄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블랙핑크·임영웅 '덕' ... CJ 4DPLEX, 지난달 최고 실적

역대 최고실적 4330만 달러 기록
공연 실황 콘텐츠 기반 성과 기여

CJ CGV 자회사 CJ 4DPLEX가 7월에 이어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CJ 4DPLEX는 글로벌 박스오피스 기준 8월 역대 최고 실적인 433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8월 대비 20% 증가한 실적이다. 영화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스크린X, 4DX의 성장과 공연 실황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라인업 다각화가 성과에 기여했다.

스크린X와 4DX의 북미 지역 박스오피스는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한 1310만 달러를 기록했다. '데드풀과 울버린', '에이리언: 리볼루션' 등 8월 주요 상영작이 호실적을 거둔 영향이다. 또한, 지난 7월 북미에서 4DX 흥행에



대만 Showtime 극장에 설치된 ScreenX. /CJ CGV

일조한 '트위스터스'가 8월 국내 개봉해 '반드시 4DX로 봐야 하는 영화'로 입소문을 탔고, '트위스터스' 국내 전체 관객 수의 27%에 해당하는 16만명의 관객이 4DX로 관람했다.

CJ 4DPLEX가 제작·배급해 선보이고 있는 공연 실황 콘텐츠도 스크린X 열풍을 일으키며 최고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지난 7월 31일 개봉한 '블랙핑크

월드투어 본 핑크 인 시네마'와 8월 14일 개봉한 '세븐틴 투어 팔로우 어게인 투 시네마'는 해외에서 스크린X로 열린 호응을 얻었다. 대만에서는 스크린X로 각각 47%와 69%의 높은 객석률을 기록했다. 8월 28일 스크린X 포맷으로 개봉한 '임영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도 8월 역대 최대 박스오피스 달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전 세계 108개국 4200여개 스크린에서 2D, 스크린X, 4DX, ULTRA 4DX로 개봉한 '블랙핑크 월드투어 본 핑크 인 시네마'는 93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걸그룹 콘서트 영화로 자리매김했으며 북미, 멕시코, 프랑스, 태국, 베트남 등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다.

CJ 4DPLEX는 7월과 8월 실적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실적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1주차 기준 3분기 박스오피스 실적은 1억 달러를 기록해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인 2019년 3분기 실적 9740만 달러를 넘어섰다. CJ 4DPLEX가 9월 특별관에서 선보이는 기대작은 '비틀즈스 비틀즈스', '베터라2', '트랜스포머 ONE', '태양: 티와이 트랙 인 시네마'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제주 첫 매장 '러쉬 제주점' 오픈. /러쉬코리아

러쉬코리아 자연친화 '제주점' 오픈

러쉬코리아가 제주도 서귀포시 산방로에 '러쉬 제주점'을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에 위치한 '러쉬 제주점'은 러쉬코리아가 선보이는 제주 지역 첫 번째 매장으로 약 122㎡(37평) 규모이다.

제주 지역이 가진 고유한 정취와 특색을 담아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재활용 플라스틱과 식물 등 지속가능한 자원을 매장 인테리어에 활용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태계 공존을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러쉬 제주점' 매장 벽체와 가구는 기존 러쉬 매장 설계에 사용된 재활용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제작, 제주 현무암과 유사한 질감으로 구현했다. 고객에게 제품 체험 기회와 개인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간인 '데모존'을 야외에 배치해 산방산 등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제품을 사용해 보는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브리즘, 인종별 맞춤형 아이웨어 설계

한국인·백인 등 얼굴 데이터 분석

아이웨어 브랜드 브리즘이 인종별 고객의 얼굴 지표 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값을 발표했다.

브리즘은 자사 고객 중 한국인, 백인, 흑인의 얼굴 지표 데이터를 분석해

인종별로 유의미한 얼굴 형태 차이를 도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브리즘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내외 브리즘 매장을 방문한 한국인 고객 2만3000여 명과 백인 및 흑인 고객 410여 명의 얼굴 형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통상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통되는 아이웨어가 백인의 얼굴에 맞게 제작돼 한국인 얼굴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으나 이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된 적은 없었다. 이에 처음으로 개별 고객의 얼굴 형태를 분석해 인종별 차이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게 브리즘 측의 설명이다.

브리즘의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과 백인의 얼굴 형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콧등 높이는 한국인과 백인 사이에 평균 9mm 넘게 차이가 났으며 얼굴 너비도 각각 평균 158mm와 152mm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과 흑인의 얼굴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미간 너비와 코 기둥 너비는 1mm에서 2mm 내외로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前 트럼프 안보보좌관 “韓 등 동맹국이 미국을 불공정 대우”
▲기세 오른 민주당 “트럼프 인지검사”
... 공화당 내부 ‘좌절감’ /사진 뉴시스

▲日고이즈미 前총리, 40대 아들 총재選 출마에 “아직 이르지만 응원한다”
▲대만 대륙위 “中 ‘독립분자 처벌’로 대만 주민 위협하는 행위 중단”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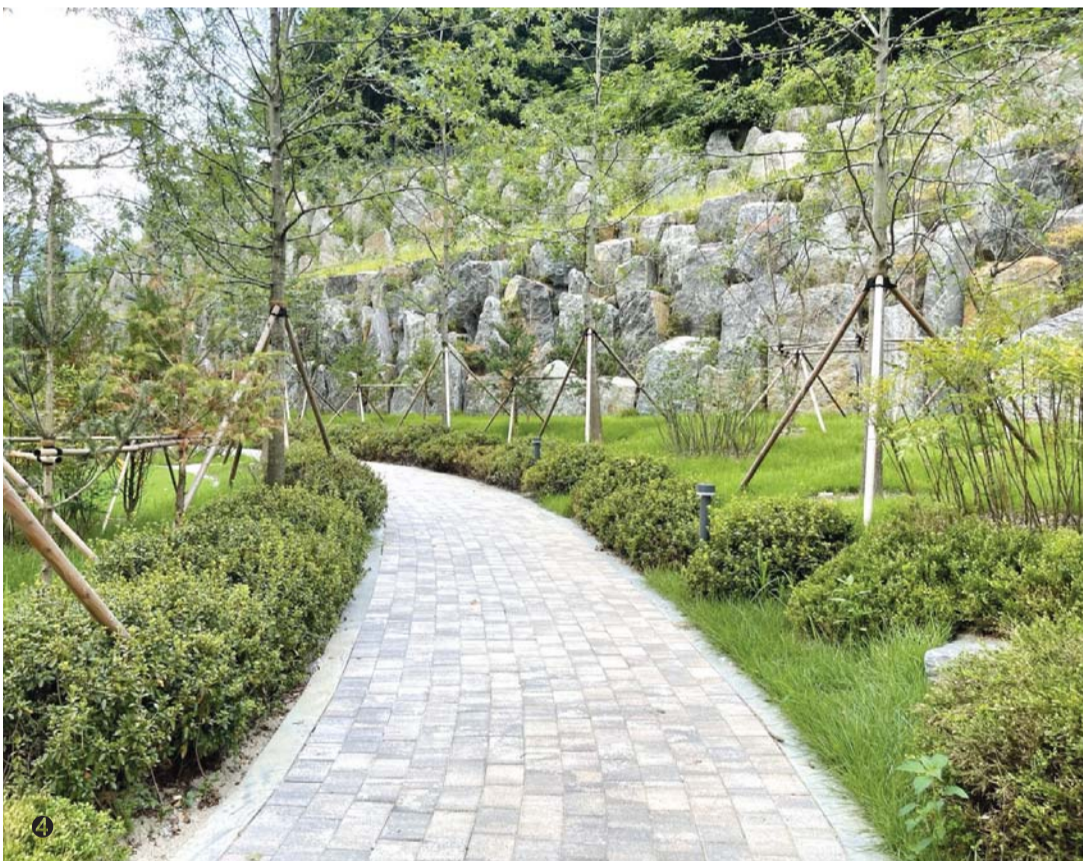


▲韓, IPEF 회원국 공급망 위기에 긴급회의 소집... 합동 모의훈련
▲이스라엘군, 가자 유엔 학교·민가 폭격... 적어도 34명 사망 /사진 뉴시스



① 단지 내 위치한 '캠 밸리' ② 수생비오톱 ③ 조각상 '리사일런스-트리' ④ 단지 내 산책로 ⑤ '봉담자이프라이드시티' 전경 /전지원 기자

“청량한 물소리 들으며 안정 찾고 숲속에서 휴식 취해요”



아파트의 미학(美學)

봉담자이프라이드시티

최근 찾아간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프라이드시티'. 은색 '자이' 로고가 부각된 아파트의 정문은 넓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고급스런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달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다. 교통편으로는 수인분당선 어천역에서 버스로 약 18분 거리다. 오는 2026년에는 KTX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단지가 위치한 내리지구엔 민간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곳으로 프라자상가인 '프라이드스퀘어'가 들어선다. 바로 앞에는 지난 1월 개교한 내리숲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봉담중고교, 수현중학교 등이 있으며 인근에 이마트, CGV, 봉담호수공원 등이 있다.

수인분당선 어천역서 버스로 18분 거리
KTX 노선개통·프라이드스퀘어 예정

중소형 평수 위주 실속단지로 구성
100% 지하주차... 총 2232대 공간 확보
계단식 휴게공간·엘리시안 가든 등 조성
수영장·사우나·다양한 테마놀이터

봉담자이프라이드시티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1개동, 총 1701세대 규모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59㎡A·A1·B·C·C1·D ▲72㎡A·B·C·C1·C2·D ▲84㎡A·B·C ▲105㎡로 중소형 평수 위주의 실속 단지로 구성됐다.

단지는 동남향, 남서향으로 배치돼 있다. 중소형 평면에도 선호도가 높은 4베이(BAY·전면을 향한 방이나 거실의 수) 판상형 구조를 도입했고 주방에 팬트리와 알파룸을 제공해 수납 공간을 넓혔다. 주차 공간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100% 지하주차 설계로 총 2232대(가구당 1.30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단지 곳곳에 '봉담자이프라이드시티'만의 조경

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릿지 밸리'는 층층이 물결치는 모습을 한 계단식 휴게공간과 자연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위쪽에는 사람들이 다함께 하늘을 날며 자연 속에서 꿈을 꾸는 세상을 표현한 조각상 '꿈을 찾아서'를 볼 수 있다. 초록색 나무의 시원한 리듬감과 울동감으로 경쾌함을 더해 일상의 공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하며 여행하는 즐거움을 나타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공간 육생비오톱(생태연못)과 수생비오톱도 볼 수 있다. 다양한 식물과 소생태계가 어우러진 풍경을 바라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수생비오톱을 바라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공간 '캠 밸리'에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커다란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 '엘리시안가든' 역시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단지 내 조성된 풀밭에는 다양한 의미의 조각상도 다양하다. '생성공간 0003'은 청정자연을 모티브로 자연에 내재된 기운생동을 공간 분할 조형을 통해 시간과 동적 울림을 표현했다. 대지에서 피어오르고 시간이 흐르며 진행되는 생성공간의 울림을 다양한 색과 면으로 결집하고 표현해 조화롭게 우리 삶의 공간으로 확산하는 조형의 음률이 담긴 작품이다.

'리사일런스-트리(Resilience-Tree, 회복의 나무)'는 자연의 생명력과 잠재성, 회복력을 주제로 표현해 단지 내에서 긍정의 메세지와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지표면에서 점점 높아지고 확장 돼가는 원기둥의 형태가 우리 삶의 꿈과 이상을 표출하고자 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수영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어 다양한 여가·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테마 놀이터도 다채롭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인지발달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숲 속 과학 놀이터',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며 정글 속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움트는 정글 놀이터' 등이 있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유통업계
뷰티상품 강화 나서
니



Life

안성호·안정호 형제
사회공헌 활발
L2



추석 연휴 3695만명 이동... 귀성길, 16일 오전 가장 막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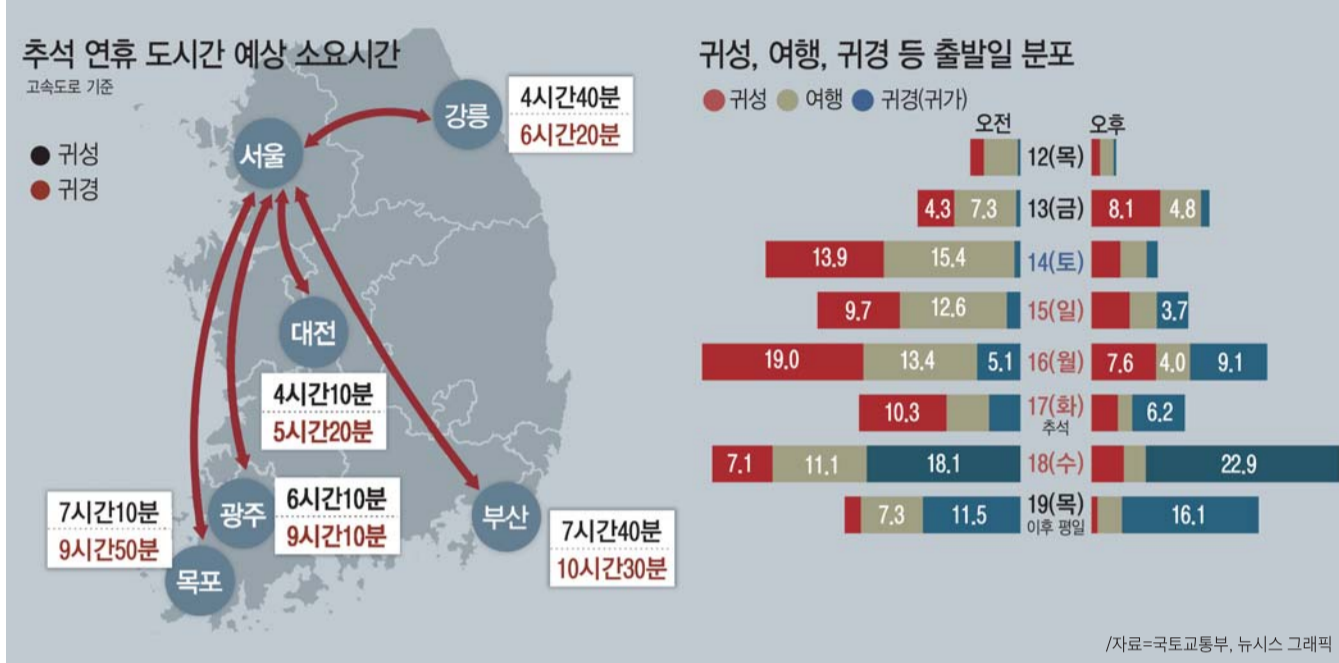
고향가는 길

귀성 시간 줄고 귀경은 길어질 듯
서울~부산 최대 7시간40분 전망
15일~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해 추석 고속도로 귀성 소요시간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부산이 7시간40분 가량 될 것으로 예측됐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은 추석 다음날인 18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명, 하루 평균 61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88.4%는 승용차를 이용할 전망이다.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대로 추정됐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귀성에 걸리는 시간은 줄고, 귀경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귀성기간이 4일로 여유있는 반면 귀경기간은 2일로 짧다.

고속도로 최대 귀성 소요시간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부산 7시간40

분, 서울~목포 7시간10분, 서울~광주 6시간10분, 서울~강릉 4시간40분, 서울~대전 4시간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귀경의 경우 부산~서울 10시간30분, 목포~서울 9시간50분, 광주~서울 9시

간10분, 강릉~서울이 6시간20분, 대전~서울 5시간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은 추석 다음날인 18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앞서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했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km)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은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동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석) 늘린다.

올해 추석에도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3000원 이하인 알뜰간식을 판매하고, 무료 와이파이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KTX·SRT 역 귀성 등은 요금을 30~40% 할인해주고, 안내인력 총원과 혼잡정보 제공 등 휴게소·공항 등지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심야에 도착하는 귀경객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일과 18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은행권, 고속도로 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ATM 설치하고 신권교환 창구 운영
상하행, 운영 시간·날짜 등 확인해야

은행권이 고객의 금융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점포와 신권 교환 창구를 운영한다. 이동 점포에서는 ATM 이용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3일 경부고속도로(하행) 기흥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신한은행은 13~14일 양일간 서해안고속도로(하행) 화성휴게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NH농협은행은 13~14일 중부고속도로(하행)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추석 연휴 은행별 이동점포 및 신권 교환 창구 운영 계획>

/자료=각 사

은행	위치	운영 기간	운영 시간	이용 가능 업무
신한	서해안고속도로(하행)화성휴게소	13일~14일	10시~16시	ATM이용신권교환
국민	경부고속도로(하행)기흥휴게소	13일	10시~16시	ATM이용신권교환
하나	경부고속도로(하행)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	13일~14일	10시~15시	ATM이용신권교환
우리	경부고속도로(하행)망향휴게소	13일~14일	10시~17시	ATM이용신권교환
농협	중부고속도로(하행)하남드림휴게소	13~14일	10시~16시	ATM이용신권교환
기업	영동고속도로(강릉방면)덕평휴게소	13일	12시~18시	ATM이용신권교환
부산	남해고속도로(순천방면)진영휴게소	13일~14일	10시~16시	신권교환
경남	창원중앙역	13일~14일	09시~16시	신권교환
iM	중앙고속도로(춘천방면)통명휴게소	13일~14일	10시~17시	ATM이용신권교환
광주	영광군 상사화 축제	13일~18일	09시~16시	신권교환

부터 오후 4시까지다.

하나은행은 13~14일 양일간 경부고속도로(하행)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우리은행은 13~14일 경부고속도로(하행) 망향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IBK기업은행은 13일 영동고속도로(강릉방면) 덕평휴게소에서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부산은행은 13~14일 남해고속도로(순천방면) 진영휴게소에서 신권 교환 창구를 운영한다. 같은날 경남은행도 창원중앙역에서 신권 교환 창구를 운영한다.

iM뱅크는 13~14일 중앙고속도로(춘천방면) 통명휴게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ATM 이용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오는 13~18일 6일간 영광군 상사화 축제 현장에서 신권 교환을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고향가기 전, 차량 무상점검 받으세요"

삼성화재, Car케어 서비스 실시
전국 1500곳서 누구나 이용가능
DB손보, 가입고객 전원 서비스

명절 연휴를 맞아 차량 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추석맞이 특별 차량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추석맞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인 'Car케어'를 실시한다. Car케어는 차량의 점검뿐만 아니라 경정비와 수리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예약하고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국 400여곳의 애니카랜드(경정비)와 1100여곳의 애니카패밀리센터(수리)에서 운영된다. 차량 이용과 관련된 주차, 세차, 렌터카 등의 전반적인 혜택은 물론 타이어와 블랙박스 같은 필수 차량용품에 대한 할인도 제공된다. 혜택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이 아니더라도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Car케어 서비스를 통해 차량 관리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예방 정비를 통해 고객에게 안전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연휴 전인 13일까지 사고예방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차량 무상점검서비스를 진행한다.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전국 프로미카월드 264개 점에서 무상점검서비스가 진행된다.

오토케어서비스 특약 가입고객에는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공기압 등 25가지 점검에 추가로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특약 미 가입 고객에게는 12가지 점검 및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추석명절에도 어김없이 연휴 전 차량무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고객 서비스 차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홍명보호, 첫 승 거두고 오늘 귀국... 손흥민 등 소속팀 복귀
▲'중 앙구제명' 손준호, 주말 K리그 나서 나...수원FC '공식입장 정리 중' /사진 뉴시스

▲한국, 아시아 U-18 핸드볼선수권 조 2위로 4강 진출
▲이호리, '60억 평창동 집' 이사 앞두고 청담동 가구 쇼핑



▲칼빠든 MBC, '정년이' 제작사 가압류...법원 인용
▲호날두 "맨유, 피겨스 은퇴 이후 발전 없어...다 뜯어고쳐야" /사진 뉴시스